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임강택 | 이석기 | 이영훈 | 임을출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임강택(통일연구원) | 이석기(산업연구원) | 이영훈(한국은행)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본 서의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국제사회의 제재효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개 기업·기관과 개인 5명, 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2009년 7월 16일, 뉴욕 현지시각)
 -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09.4월 지정한 조선광업무역 회사를 비롯한 3개 단체까지 포함, 모두 8개의 북한 기업·기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하며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
- 이 조치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기업과 개인,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
 -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기관의 무역·금융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개인들이 평소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또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 또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가 이들 대상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도 변수
 - 결국 제재의 효과는 각국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북한 대외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 동참 및 참여 수위 여부가 제재효과의 관건
 -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투 트랙’ 입장을 지지
 -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
 - 결국 중국은 제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협력은 추진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함.

나. 시장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 북한당국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던 종합시장의 농민시장으로의 환원 등을 단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마침내 2009년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시장 통제와 계획경제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 2009년 3월경에는 장마당에서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면서 강력한 시장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짐.

- 여기에서 공지된 '통제물품 목록'에는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 5월에는 각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당의 의도대로 관리 운영할 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차관 장사와 도매 장사, 국가적으로 못 팔게 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들에서 개인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조성시켜 주는 현상, 기업소 자체로 장사판을 벌려 놓은 현상
 - 평성시장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시장 자체적으로 판매소를 만들어 장사하는 현상
 - 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현상, 손구루마 끄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 등
- 이어 “무역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유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에 대한 국방위원회 지시문을 하달하여 시장 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함.
 - 이에 따르면,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군부 및 보위부나 보안성과 같은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은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도록 함.
 - 또한 각종 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도 무역기관에 소속시켜 도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함.

□ 화폐개혁의 단행

- 북한은 화폐개혁으로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대 1'로 교환, 실시 초기 1세대당 구화폐를 10만원까지만 교환해 준 것으로 추정
- 화폐개혁의 주요 목표는 계획경제체제 강화 및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 약화로 볼 수 있음.
 - 주민들의 구매력 및 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평가됨.
 - 그 외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건설 재원 마련,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 강화 등을 모색하였음.
- 화폐개혁 실시 이후 북한은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였는바, 시장통제 및 시장자원의 국가부문으로의 이전, 외화사용 금지, 임시가격 하달, 주민 대상 임금·배려금 지급 등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국가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장통제는 주민들의 식량·생필품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인플레이션 재현으로 귀결되었음.
 - 외화사용 금지를 시도했으나, 북한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및 외화선호로 인해 시장환율도 급등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2월 이후 북한은 시장통제를 완화하고 외화사용을 재허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바, 북한당국도 화폐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일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련 동향으로 북한이 계획경제체제 강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 북한 산업순환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산업순환 구조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순환 구조는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
- 첫째, 금속부문이 신년사 등에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일 전투’ 등의 성과 보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금속부문의 강조는 전력 공급 사정이 금속공업을 비롯한 산업의 가동률 제고에 일차적인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동시에 기계부문이나 설비부문에서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둘째, 대형설비 생산 여력의 부분적 회복 가능성임.
 - 조선신보 등은 낙원 기계연합기업소가 천리마제강 산하 보산제철소의 ‘주체철’ 생산공정용과 홍남 비료연합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용 등 2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중이라고 보도
 - 또한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무연탄 가스화 설비 공사가 2008년부터 진행중임.
- 셋째, 김정일의 현지지도 등을 고려한, 홍남 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대형 화학기업의 생산 재개 혹은 능력 확장 가능성
 - 대규모 화학공업의 정상 가동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던 전력과 석탄의 공급, 그리고 수송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이들 화학공장들의 가동률 증가는 비료, 화학섬유, 기초 화학물질 등 화학 원자재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의 성과와 한계

- '150일 전투'는 대중동원 방식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이고, 각 부문에 축적된 자원을 동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150일 전투' 과정에서 자원이 집중 투입된 금속을 비롯한 석탄, 전력, 건설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동원 가능한 자원이 극히 제한된 북한에서 단기간의 노력동원 방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당장은 '150일 전투'나 '100일 전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부문의 불균형 심화나 주민들의 반발 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 대내 경제정책

- 지난 시기 북한은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계획한 만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이용을 일부 허용하였음.
 - 즉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에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시장을 이용함.
- 북한은 국가 공급능력을 향상시켜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나름대로 계산된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임.
 - 즉,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체계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하고,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이런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단속과 통제, 노동력 강제 동원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을 추진
- 최종적으로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 금융 및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려 함.
 - 북한의 경제정책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노력 동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150일 전투'는 경제적 목적 외 정치·사회적 목적을 함께 갖는 다목적용 돌격대식 증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은 '150일 전투'를 통해 그간 관리하지 못했던 당원, 노동자 등의 복귀를 유도하여 당 조직 복원과 공장·기업소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있음.
 - 이는 시장활동을 통제하여 개인들의 국가계획 밖에서의 자산축적을 최소화시키고, 집단 노력동원으로 확보한 생산력을 국가 재정 확충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건설과 관련, '강성대국 대문'은 금속·전력 등 4대 선행부문과 함께 식량문제 해결로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한된 재원을 집중하였음.
- 북한은 최종적으로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대중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시장활동을 축소시키고, 개인적 부의 축적을 막으면서 최종적으로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지난 11월 30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는 시장활동을 위축시켜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법·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대외 경제정책

- 2009년 상반기 북한은 강경한 대외, 대남정책을 취하면서 대외 경제정책도 보수적, 소극적으로 추진해오다가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유화 자세로 태도를 전환하여 대외 경제정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년 부과하던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었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품이 북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이 기업상품의 시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중국 『길림신문』, 2009년 9월 4일).
-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주요 산업부문

- 옥수수 생장에 불리한 기후 조건 및 비료부족 등으로 2009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전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하였고, 제조업부문 역시 외부환경의 악화로 2008년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전력, 석탄, 금속 등 전략산업과 건설업 등에서의 생산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식량부문

-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2008년보다 5% 정도 감소한 411만 톤으로 추정함.
 - 동부 해안지역의 냉해와 7월 중순 이후의 중부 내륙지역의 가뭄, 그리고 비료 사용량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제조업부문

- 중유지원 효과의 소멸, 우호적이지 못한 외부환경 등으로 2008년과 같은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석탄, 금속 등에서 부분적인 생산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생산 위축도 없을 것으로 전망됨.
 - '150일 전투' 등 노력동원 방식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아니지만 일부 부문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음.
 - 경공업부문은 방직부문에서 다소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식료공업성의 창설과 각지의 종합식품가공공장의 건설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

□ 기타부문

- 건설부문은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으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일정에 따른 건설에는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상업·유통부문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여러 제한조치들이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이 상당폭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도 민간의 상업·유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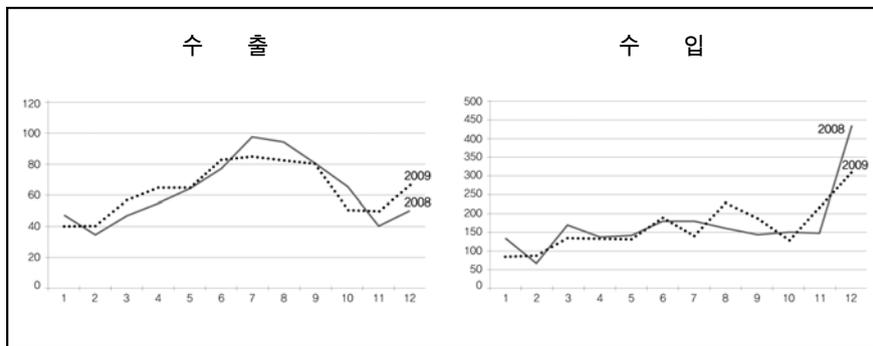
(3) 대외무역 및 협력부문

-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2009년 7월까지 중국과의 무역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고려할 때 실제 북·중무역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 2009년 북·중무역은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하였음.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이 대북한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2009년 북·중무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

〈그림 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2008.1~20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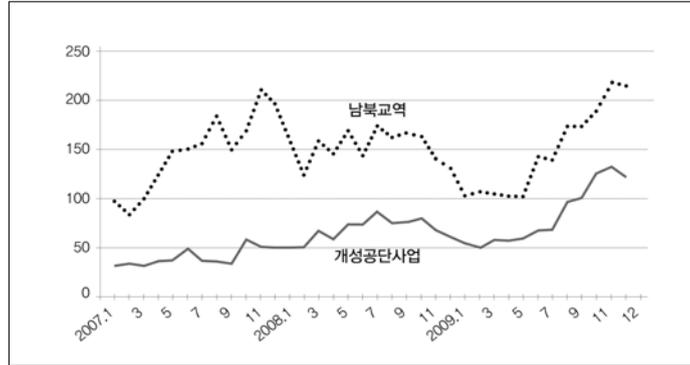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한편, 요녕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2009.7.1)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2009.10.4) 이후 양국간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북교역은 2009년 3월부터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 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회복 추세를 보임.
 - 2009년 남북교역은 16.8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는바, 반출(남→북)액은 7.5억 달러로 16.1% 감소하였고, 반입(남←북)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
 -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9.4억 달러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56.0%를 차지

〈그림 2〉 월별 남북교역 추이(2007.1~2009.12)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통일부.

-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악화된 외환조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무성과 무역성을 중심으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한 대외무역 관계자들의 수가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이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4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열린북한방송』, 2009년 10월 16일) 확인은 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이 국제제재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관계도 누그러지면서 경협관련 다양한 합의들이 가시화됨.
 - 양국은 新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중국기업의 남포항 진출문제 등 여러 경협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가. 추진여건

- 대내 정치부문
 - 체제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작업이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대내 경제부문
 - ‘150일 전투’와 연이은 ‘100일 전투’로 인해 정부 동원방식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여기에 화폐개혁 등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계획부문의 정상화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외부문
 - 북한은 체제 정비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내부 아젠다에 몰두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2010년에도 일단은 유화적인 대화 및 협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도발을 통한 대화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나. 경제정책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내부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당국은 시장활동을 범죄시하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국유기업을 비롯한 사회주의 부문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과거 시장부문이 수행해왔던 고용, 식량배분 등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대내 경제정책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다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제시한 데 따라 경공업, 농업부문의 정책이 가장 주목되고 있음.
-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통한 후계체제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시한이 임박하고, 외부의 경제지원 전망이 불투명해질수록 내부적인 인적, 물적, 금융 자원 동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시장 축소 및 국영유통망 부문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임.
 - 배급제 정상화 및 국영상점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식 유통망 체계의 복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식량 수급 전망

- 2009년 북한의 자체 식량생산량은 411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량 소요량 460여만 톤~540여만 톤에 비해 50~130여만 톤 정도 부족한 규모임.
- 따라서 2010년에도 남한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한계 계층의 식량부족은 위급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

라. 주요 산업부문

- 북·미회담 및 6자회담 등을 통하여 핵문제가 진전되어 나간다면 북한 경제는 2008년에 보여주었던 미약한 성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북지원 본격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경제관계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북·중무역 및 남북경협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하고, 외화획득에 있어 석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다소 완화되어 국내 석탄 공급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금속을 중심으로 한 선행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평양시의 건설사업 지속 등으로 2010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명한 농업 및 경공업 우선 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원배분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최근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공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경공업부문 전반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생산 확대에 실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방직을 중심으로 한 섬유·의류, 신발, 식품가공 등 일부 생필품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 전력, 금속, 기계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50일 전투식의 노력동원 방식은 그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겠지만,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금속 등 선행부문과 함께 농업, 경공업도 노력동원 방식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반면, 핵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계속되는 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는 처하지 않겠지만 경제상황은 2009년보다 악화될 것임.
 - 특히 식량난이 심화되어, 탄광 등 생산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감소하여 생산이 줄어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마. 대외 경제부문

-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품 공급능력 확대를 비롯한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자체 기술 및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10년 인민생활 향상에의 기여, 강성대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 및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유효하게 작동될 경우 대외 경제협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중무역의 감소세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지원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중무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개성공단의 활성화 여부가 2010년 남북교역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와 그에 따른 다자회담의 진전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목 차 •

I.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1
1. 대내 경제정책	1
가. 추진여건	1
나. 추진방향과 전략	4
(1) 추진방향과 원칙	4
(2) 우선순위와 추진전략	5
다. 부문별 추진과제	6
2. 대외 경제정책	9
가. 추진여건	9
나. 추진방향과 전략	12
3.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14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14
(1) 대중동원 운동을 통한 성공사례의 창출	15
(2) 내부 단속의 강화	18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20
II. 2009년 북한경제 실적	23
1. 대내 경제	23
가. 선행부문	23
나. 농·림·축·수산업부문	29
다. 경공업부문	30
라. 과학기술부문	31
마. 건설·국토관리부문	32
바. 상업·유통부문	33

2. 대외 경제	34
가. 북·중무역	34
나. 남북교역	36
다. 대외 경제협력	40
Ⅲ.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44
1.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44
가. 국제사회의 제재효과	44
나. 시장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49
(1) 시장에 대한 통제의 강화	49
(2) 화폐개혁의 배경과 파급효과, 전망	51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54
(1) 김정일 현지도 등을 통해 본 북한 산업순환 변화 가능성	54
(2)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의 성과와 한계	56
라. 종합평가	59
(1) 경제정책 추진	59
(2) 주요 산업부문	60
(3) 대외무역 및 협력부문	61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63
가. 북·중관계를 통해 본 북한경제 변화 전망	63
나. 식량 수급 전망	66
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당면과제	67
라. 2010년 북한경제 전망	70
(1) 추진여건	70
(2) 경제정책	72
(3) 주요 산업부문	76
(4) 대외 경제부문	78

| 부 록 |

2009 북한경제 주요실적	79
2009 북한경제 주요행사	82
2009 북한경제 주요일지	89

• 표 목차 •

〈표 1〉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35
〈표 2〉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36
〈표 3〉 최근 남북교역 현황	37
〈표 4〉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38
〈표 5〉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39
〈표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경제제재 주요내용	45
〈표 7〉 장마당의 주요 통제물품 목록	50

• 그림 목차 •

〈그림 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35
〈그림 2〉 월별 남북교역 추이	40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 경제정책

가. 추진여건

□ 정치적 환경

- 2009년을 시작하는 북한의 정치적 환경으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그에 따른 후계체제 구축 작업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의 두 가지 사안은 체제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강화하는 작업이 2009년을 맞은 북한의 국가적인 우선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2008년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부각되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미확인 루머와 확인된 정보들이 섞여서 전달되었음.
 - 그러나 2008년 말로 가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보도가 북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긴급 사태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전성은 완전하게 제거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일심단결’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체제불안 요소가 증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가능성과 함께 부각된 이슈는 후계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음.
 - 3대 세습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점쳐지면서 후계자로 김정은이 부상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눈에 띄는 후계자의 부재를 이유로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였음.
 - 3대 세습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후계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에 경제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문제와 북한이 국가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 대문을 열자’는 2012년을 연결시켜 사고할 경우, 북한은 국가경제 생산체계의 복원과 계획경제 관리체계의 정상화 등과 같은 경제부문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과제 중에서 정치사상강국 및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과제에 집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제강국 건설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당분간 북한당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정책 목표로 지속적으로 강조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 · 사회적 환경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북한경제는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곡물생산 증가, 6자회담 결과로 이루어진 중유 및 발전소 복구 자재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북한경제는 곡물, 전력, 석탄 등 기초부문의 생산증가와 이외에도 제조업의 가동율 상승 등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활동이 전년에 비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08년 경제성장이 주로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중국과의 무역 증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3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남북교역 규모도 1.2% 증가한 18.2억 달러를 기록함.
 - 북한의 수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6.9억 달러로 33.2% 증가
 - 수출 증대는 주로 광물(33.5%)과 금속제품(24.4%)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입 증대는 섬유류(75.3%), 광물(41.4%), 기계류(26.2%)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남한으로부터의 반입은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입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4% 감소함.
 - 남한으로의 반출은 위탁가공품목과 개성공단 생산품을 중심으로 21.8% 증가를 기록함.

-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만톤 증가한 431만톤으로 추정됨.
 - 2008년 양곡연도(2007.11~2008.10)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식량은

밀가루와 두류까지 포함할 경우 23만 2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11% 감소하였음.

- 2008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11만 8천 톤)을 제외하면 무시할만한 수준임.
- 종합하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및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인하여 북한의 2008년 곡물 공급능력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당국은 2008년에도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

-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는 시장을 폐쇄하겠다는 지시문을 하달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함.
- 2008년 11월, 2009년 1월 3일부터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과거 농민시장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새 시장관리 규칙’을 발표함.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48호, 2008년 11월 6일)
-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나. 추진방향과 전략

(1) 추진방향과 원칙

- 2009년도 정책목표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 새로운 대고조역사를 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함.
- 또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 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강력한 추진을 제시함.
 - 또한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자고 강조함.
-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으로 제시된 것은,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 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자는 것임.
 - 이는 공식경제부문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전 부문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을 강조한 것임.
 -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추진해 생산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임.
 - 즉,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을 제시함.
 - 경제관리원칙으로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계획화사업 개선, 내부자원을 철저히 동원하는 방향에서 경제전략과 조직의 전개, 노동행정규율·계획규율·재정규율 등의 강화 및 실리보장, 경제관리의 정보화, 과학화 등을 제시함.

(2) 우선순위와 추진전략

- 부문별 우선순위는 ‘천리마대고조’라는 구호에 따라 금속공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다음으로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을 제시함.
 - 다음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식량부문, 수산부문, 경공업부문, 도시경영 및 산림조성을 강조함.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2의 천리마 운동’을 제시함.
 -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2009년을 “전 인민적 총공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제2의 천리마 운동’을 제시함.
 - 이는 2009년 한해 경제정책의 방향으로서 현대화, 자력갱생과 인민들의 노력동원을 예고한 것임.
 - 또한 ‘경제를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총진군 운동’을 강조한 데서도 읽을 수 있듯이 경제의 속도전을 강조함.
 - 이런 경제정책 방향과 전략에 따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로 연결됨.

다. 부문별 추진과제

□ 금속공업 부문

- 금속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중심축으로 삼아,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주체철’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고 금속공장들에 전기와 연료, 원료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이미 개건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성과를 내도록 함.

□ 전력, 석탄, 철도운수 부문

-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자고 강조함.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데 힘을 넣으면서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함.
-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경제발전의 생명선을 지키겠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함.
- 국가적으로 탄광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강화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증대

채취공업 부문

- 유망한 광산들을 실리있게 개발하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함.

화학공업 부문

- 기초 화학제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며, 남흥 가스화대상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것을 강조함.

농업 부문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자고 강조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의 강화를 강조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정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

□ 수산 부문

- 수산물생산과 재배어업,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

□ 경공업 부문

-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산업 공장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

□ 기타 부문

- 평양시 살림집 건설을 대담하게 추진하고, 도시경영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함.
- 산림조성사업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함.

2. 대외 경제정책

가. 추진여건

□ 대외관계

○ 핵문제 및 대미관계

- 2008년 3월 26일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을 계기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음.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10.11)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 해 동안 2단계 비핵화를 종료하는 데 실패하였음.
-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신고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함(6.26).
- 이에 맞추어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였으나 북핵 신고를 위한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됨.
- 이에 반발한 북한은 불능화 중단을 선언(8.26)한데 이어, 국제원자력 기구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의 제거를 요구하고 일주일 내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힘(9.22).
- 이후 지루하게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12.8~11)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였음.

○ 대중관계

- 2008년 북한과 중국은 양국 정상들의 우호적인 발언 속에서 협력 분위기를 유지시켜 나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한층 더 발전한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였음.

- 북·중관계 개선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시진핑(習進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이라고 할 수 있음. 시진핑 부주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외교부 부부장, 중련부 부부장, 상무부 부부장, 중앙정책실 부주임 등을 대동함.
- 2008년 북·중무역은 양국의 정치적 관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대일관계

-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쿠다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주요 현안인 납치자문제의 전면 재조사 등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보였지만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중단됨.
- 후쿠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사임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아소 정권의 등장으로 북·일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진입하게 됨.

○ 대러관계

- 북·러관계는 북·중관계에 비해서는 다소 소원해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경제분야에서는 약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진~하산 사이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나진항 개보수를 위한 협력에 합의함.
- 양측이 합의한 사업의 주요내용은 두만강~나진 철도 재건,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인프라 구축, 하산~나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설립 등임.

□ 남북관계

- 2008년 남북관계는 3월 말부터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와 비난으로 경색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7월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여기에 더하여 북한당국이 12월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중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11.24)함에 따라서 그나마 유지되던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 마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이에 따라 개성관광·철도운행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철수함.

-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함으로써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사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남한정부 역시 대북정책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시사하였음.

□ 국제시장 환경

- 2008년 9월부터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였음.
 - 다만 2008년 말에는,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데대한 기

대감과 함께, 각국 정부들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하락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09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나. 추진방향과 전략

- 2009년 신년공동사설은 대외정책 기조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아래 우호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자주위업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함.
 -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함.
-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은 연초부터 대남관계의 악화와 대미관계 개선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대내 경제정책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 이는 세계금융시장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 세계경제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와 함께 북핵 관련 미국의 입장이 예상보다 강경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시장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남한정부도 기본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유도해 내는 작업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임.
- 이와 같은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회생, 특히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열기’의 경제적 기반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2009년 대외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국경제와 정치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에 따라서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동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3. 2009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 보수적, 과거 회귀적 계획경제 심화

-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의 강화 시도
- 과거 속도전, 대중운동 기본방식 재연
 - 모범의 창출과 대중적 확산, 목표의 조기 달성, 노력 경쟁 등 과거 ‘천리마운동’, ‘성강의 봉화’ 등과 같은 속도전 방식 답습
 - 각 생산 단위의 목표 조기 달성과 증산 실적에 대한 선전보도를 지속하는 한편 각 부문의 경쟁단위를 소개하면서 실적 경쟁을 유도
- 대중동원, 시장을 포함한 사회통제 강화 등 내부 단속 강화

□ 국가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건설

- 2009년 한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2012년 강성대국’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대중동원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
-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희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 건설과 수십만 가구의 살림집, 공공건물 건설 등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의 조기 완료를 추진

- 이는 한정된 재원을 역점 추진사업인 4대 선행부문에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 일반 주민들에게는 ‘절약 투쟁’의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 모색
 - ‘절약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
 -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제한된 국가 재정 속에서 핵심적인 국가건설 사업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절약을 강조한 것
 - ‘절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장, 기업소 등에서 절약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원자재 절약 상금, 원자재 절약 장려금, 노동정량 갱신 장려금 등 추가적 노동보수 지불형태를 적용’함으로써 증산·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1) 노력동원 운동을 통한 성공사례의 창출

□ ‘150일 전투’ 실적 홍보를 통한 주민 사기 고양

- 북한은 ‘150일 전투’가 끝난 9월 중순과 말 기간에 각종 언론매체, 시 당 지도일꾼 협의회 등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생산 전투 실적을 애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했음을 집중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 등을 주면서 후속적인 ‘100일 전투’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였음.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례적으로 9월 21일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데 대하여”라는 보도문을 통해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고 밝힘.
 -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 보도문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150일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계속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제길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강조

- 북한은 사회주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주요 부문별 경쟁단위를 소개함. (『노동신문』, 2009년 8월 29일).
 - 금속부문: 성진제강소(함북김책)와 9월 제철소(평북 의주), 황해 제철소(황북 송림)
 - 벼농사: 미곡(황북 사리원), 신암(평북 용천군), 삼지강(황남 지령), 은흥(평북 태천), 동봉(함남 함주)
 - 감자생산: 대흥단군·백암군(자강), 부전군·장진군(함남)
 - 화장품: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
 - 문화예술: 가극 ‘홍루몽’과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 그러나 ‘15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100일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북한이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생산 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를 위한 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100일 전투’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150일 전투’ 선전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음.

□ ‘150일 전투’를 통한 정치·경제·사회적 목적 달성

- ‘150일 전투’는 경제적 목적 외 정치·사회적 목적을 함께 갖는 다목적용 돌격대식 증산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특별 보도문을 통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150일 전투’는 단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이였다”고 강조한 데서도 뒷받침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6.25담화’로 알려진 “당 군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도 “특히 당원들이 혁명적 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특히 북한은 ‘150일 전투’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당원, 노동자 등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여 당 조직 복원과 공장·기업소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음.

○ 또한 다수 탈북 엘리트들은 북한이 ‘150일 전투’를 벌이는 진짜 목적에 대해 “시장경제가 북한체제를 잠식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

- 이들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로 인해 흔들리는 내부를 단속하고 시장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부를 국가의 몫으로 돌리려는 강제적 목적”도 있다고 주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전략

○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은 한정된 분야나 지역에 대한 선택적 집중투자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분야에 성공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라는 주제의 담화(소위, 6.25 경제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조선중앙방송』, 2009년 8월 27일).

-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6월 25일 당·군·국가의 경제기관 간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부문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할 것을 역설함.

- 그는 국방공업에 이어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4대 부문 중에서도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금속공업부문을 치켜세우는 것”이라고 제시함.
- 또한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주문하면서 희천발전소를 2012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고 금야강발전소, 예성강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다른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함.
- 북한의 동해 항구 도시인 강원도 원산에서는 2009년 1월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에 따라 야간 조명으로 ‘황홀한 불야성’이 펼쳐진 가운데 시민들이 생선회도 즐겨 먹는다고 선전한 바 있음(『조선신보』, 2009년 7월 7일).
- 건설부문과 관련해서도 “2012년을 목표로 우선 평양의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는 몇 해 안으로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모두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조선신보』, 2009년 9월 14일)

(2) 내부 단속의 강화

□ 사회동원체제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불만 관리

- 북한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펼치고 있는 ‘150일 전투’가 경제난 극복의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주민 생활에 어려움만을 가중시켜 당국에 대한 원성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는 측면도 노출됨.
 - 특히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변화된 북한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국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150일 전투’ 동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개별 경제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시장에서의 금지 품목 판매와 장마당은 직접 단속의 대상이 됨.
- 하지만 ‘150일 전투’ 등 사회동원체제는 이런 불만들을 조직적으로 잠재우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국 주도의 동원체제에 순응하는 방안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이는 ‘150일 전투’ 참여 등을 거부하는 데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임.
 - 다수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전투 중에는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 사소한 불응·저항 등에 대한 처벌 가중, 간부들의 경우 실적에 따른 문책·비판 등 억압적 분위기가 만연한다고 함.

□ 시장 단속의 지속

- 북한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온 평성시장을 폐쇄하고 대신에 교외지역에 소규모의 장마당 2개를 분산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새로 설치한 장마당은 7~8천 석 규모로 기존 평성시장의 3~4만 석 규모에 비해 축소됨.
 - 평성시장의 폐쇄는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전국의 시장을 축소시키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제283호, 2009년 6월 16일).

- 11월말 실시한 화폐개혁 이후 시장통제를 보다 본격화하여,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는 농토산물 판매만 허용하여 공산품 등은 국영유통망 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음.
 - 그러나 이후 생필품 부족, 인플레이션 등 시장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 시장통제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 2009년 상반기 북한은 강경한 대외, 대남정책을 취하다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유화 자세로 태도를 변화시킴.
 - 특히,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의 「라선대흥무역회사」 등을 방문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지시를 내린 것(『조선중앙통신』, 2009.12.16) 등은 주목할 대목임.
- 이는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외 경제관계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가능함.
- 우선, 내부결속을 위한 대외적 강경정책이 후계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재건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 존재
- 이와는 상반되게 대외 강경노선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와 경제난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내부 정치·경제적 위기 돌파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
 -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과하던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고,

-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품이 북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이 기업상품의 시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중국 『길림신문』, 2009년 9월 4일).
-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악화된 외환조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무성과 무역성을 중심으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한 대외무역 관계자들의 수가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이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4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열린북한방송』, 2009년 10월 16일) 확인은 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에 개성공단보다도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내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2009년 12월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글, 『연합뉴스』, 2009년 12월 8일 인용).
 -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북한측 소장이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지난 11월 말 방북한 미국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설명
 - 북한이 제시한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북한당국은 한 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함.

- 북한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 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
-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네덜란드에서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 사업 설명회에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바가 있음(『자유아시아방송(RFA)』, 2009년 3월 11일).
 - 2009년 3월 4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은 참석한 40여 개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무역과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이 유럽기업들에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역 관세를 비롯한 영업세, 수익세 등의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
 - 북한 관리들은 또 외벽 유리 공사를 하고 있는 105층짜리 류경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평양 한복판에 이러한 고층 쇼핑몰이나 호텔을 세우고 싶다면 이러한 관광시설에 대한 유럽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 종합하면, 2009년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미사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I

2009년 북한경제 실적

1. 대내 경제

가. 선행부문

- 2009년 북한의 선행부문은 전력생산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2008년과 같은 생산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속과 기계부문을 중심으로 약간의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리고 화학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설비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설비들이 가동되는 2010년부터는 화학부문에서 적지 않은 생산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금속부문

- 금속부문은 선행부문 중에서 2009년에 가장 강조된 부문임.
 - 신년공동사설에서 뿐만 아니라 ‘150일 전투’, ‘100일 전투’ 기간 중에도 가장 강조됨.
- 특히 천리마제강의 생산 증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제철소의 기술개건 동향이 주로 보도되었던 2008년과는 다른 양상임.
 - 2008년에는 김책제철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건축 관련 기사나 황해제철소의 회전로 보수 등의 기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09년에는 천리마제강소에 대한 각 기업소나 지역의 파철 지원, 천리마제강소의 철강 생산 증가 실적이 주로 강조되었으며,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동향은 ‘100일 전투’ 개시 이후에 보도되기 시작함.
 - 이는 ‘150일 전투’ 기간까지 천리마제강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투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였음을 의미함.
- 『조선중앙방송』이 ‘150일 전투’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강철 생산 4.5배, 압연강재 2.6배, 주체철 생산 5.2배, 선철 생산 1.5배 장성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상당한 생산 증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음.
 - 생산 성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업소로 천리마제강이 유일하게 지목되고 있으며,
 - 김책제철소와 관련하여서는 ‘100일 전투’ 기간 동안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산 ‘수만 톤 급 용광로’를 가동하여 선철(주체철)을 생산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음.
- 전체적으로 금속부문에서는 천리마제강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용 및 건축용 철강재의 공급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진제강과 김책제철소에서 코크스탄을 사용하지 않는 ‘주체철’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 개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일 위원장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사용하여 제철, 제강, 정련공정의 일관공정을 완성한 성진제강소의 업적을 ‘제3차 핵실험보다 더 큰 성과’라고 칭찬
- 비철금속부문은 금속부문에 대한 정책, 자원의 집중에 의해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전력부문

- 전력부문에서의 투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에 집중되고 있음.
 - 어랑천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 등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희천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희천속도’라는 캠페인을 전개할 정도로 건설을 독려하고 있음.
 - 화력발전소는 개보수 및 현대화를 통한 발전 증대에 주력하고 있음.

- 2009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6자회담 틀에 의한 중유 공급 효과의 소멸과 수력발전에 유리하지 못한 강수 조건 등 전력부문에 불리한 외부 환경이 작용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력발전부문에서 원산청년발전소와 영변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 발전소와 금진강 구창청년발전소, 대흥청년1호발전소, 덕지강 6호청년발전소 등 중소형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 화력발전부문에서는 최대 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와 동평양발전소 등에서 부분적인 발전량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고칼로리탄의 수출 금지는 화력 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추정이 가능함.
 - 6자회담 중유지원 중단 등으로 전력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 하던 고칼로리탄을 내수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
 - 상반기에 증가한 대중국 고칼로리탄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서 중단된 것은 ‘150일 전투’ 등과 관련하여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도 있음.

- 전체적으로 전력부문의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며, 이에 따라 전력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석탄 · 광업부문

- 석탄 생산량은 최근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 매체들은 순천지구, 안주지구, 덕천지구 등의 탄광을 중심으로 석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보도
 -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대중동원 정책은 건설, 지하자원 채취 등 노동력 비중이 큰 분야에 직접적인 생산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철광석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속부문에 대한 강조에 따른 내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산부문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기계부문

- 기계부문은 철강재, 비료, 전력 등의 생산 증대를 위한 대형 설비 제작 및 공작기계 공급 증가에 주력하였음.
- 생산 동향 보도는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 집중되었음.
 -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보산제철소와 함흥비료연합기업소에 설치할 두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대형 수력발전소용 수력터빈과 발전기, 변압기 등 발전설비의 생산에 주력

- 그동안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고, 여기에서 ‘수백 대’의 상용차가 생산되었다는 보도, 그리고 금성뜨락또르에 대한 현지지도 보도 등은 기계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낙원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제작이 1990년대 중단 이후 십여 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점, 홍남비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대형 화학공장의 개건, 확장 공사의 지속,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감안할 때 기계부문에 어느 정도 생산 증가가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형 설비제작과 함께 공작기계 특히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개발 및 보급 성과가 강조되었음.
 - 『노동신문』은 2009년 8월 11일 CNC 설비 자체생산 성과에 대해서 “기계공업의 세계적 수준돌파, 21세기 자력갱생의 영마루에 올랐다”고 선전
 - CNC 공작기계 개발은 련하기계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CNC 공작기계 보급의 구체적 성과로는 천리마제강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1만 톤 프레스의 주체식 CNC화, 구성공작기계의 CNC에 기반한 생산체계의 구축,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의 CNC화 등이 보도

□ 화학 · 건재부문

- 화학부문에서는 생산 실적보다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산업설비의 개건·현대화 사업이 주로 보도되었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2009년에 물감생산 공정의 건설이 완료되었으

며, 2010년에 전체 공정의 건설이 완료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던 비날론의 생산이 재개되고, 염화비닐, 가성소다, 염산 등 여러 중간제품이 생산되어 원부자재 공급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공정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북한은 이들 두 대규모 화학기업소들의 증설이 완료되면 2011년부터는 비료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건재부문에서는 평양시 10만 호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대동강타일공장의 1차 확장공사 완료와 2차 확장공사에 대한 전망기사가 주요내용
 - 북한은 주택공사에 필요한 건자재 공급을 위해 대동강타일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전국적인 건자재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임.
 - 시멘트부문에서는 별다른 동향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과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생산 증가 보도가 거의 유일함.
- 평양시 주택 10만 호 건설, 각지의 발전소 건설 등 대대적인 건설공사의 추진에 따라 시멘트 등 건자재 생산도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수송 · 통신부문

- 수송부문에서 주목되는 보도는 단천항 개발에 관한 보도임.
 - 북한은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항인 단천항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건설부문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 원산항 2호 부두의 확장공사 완공

- 중국과 나진항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은 중국의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 나진 1호 부두의 개발 및 운영권을 중국기업이 확보하였다는 보도 (『연합뉴스』, 2009년 10월 7일)
-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증가와 모바일 웹 개발이 주요 동향으로 보도되었음.
 - 이동통신 가입자는 9월 말 10만 명을 넘어섰으며(『미국의 소리』(VOA)), 10월에는 신의주에도 개통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러명’이 ‘손전화(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

나. 농·림·축·수산업부문

- 농업부문은 곡물 생산이 2008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하는 등 전년에 비해 생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농업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5% 정도 줄어들어 41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쌀은 평년작 수준이지만, 옥수수 생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전체적인 식량 생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세계식량기구(FAO)는 북한 농업성의 자료를 기초로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2만 톤(정곡 기준시 352만톤)으로 발표하였음.
- 2009년 북한의 식량 생산 감소의 주된 원인은 불리한 기후조건이며, 비료 공급 감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동북 해안지역의 냉해와 7월 중순 이후 중부 내륙지역의 3주 이상의 가뭄 등이 옥수수 생육에 큰 지장을 주었음.

- FAO에 의하면 2009년 북한의 비료 사용량은 44만 6천 톤(중량 기준, 성분량 기준 10만 톤 내외)으로, 이는 1989년 이래 최저 수준임.
 - 옥수수는 벼 보다 비료 투입에 따른 증산 효과가 큰 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료 투입량 감소도 옥수수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됨.
- 축산부문에서는 닭공장, 돼지 사육장 등에 대한 현지도 동향 정도가 보도되었으며, 수산·임업부문에서도 별다른 성과에 대한 보도가 없었음.
 - '150일 전투' 기간 중 전년 동기에 비해 수산물 생산 40%, 통나무 생산 50% 증가하였다고 보도

다. 경공업부문

- 2009년 경공업부문은 남한으로부터의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효과가 소멸되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공급 감소로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경공업부문에서의 실적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방직부문은 상대적으로 생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도됨.
 - 연초 경공업상이 경공업부문에서 방직부문을 가장 역점을 둔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평양방직, 함흥편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선교편직공장 등 방직부문에 동향 보도가 집중되고 있음.
 - 평양방직기계공장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역시 방직부문의 상대적 호조와 그에 따른 방직기계 공급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경공업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동향은 식료일용공업성의 창설과 각지에서의 종합식품종합공장의 건설임.
 -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대동강식료공장, 사리원곡산공장, 해주어린이식료공장, 함흥기초식품공장 등 기존의 식품가공공장들의 개·보수 및 현대화와 백운산식료공장 등 각 도별로 종합식료가공공장의 건설

- 북한이 식료일용공업성을 창설하고, 종합식품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은 시장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식품가공부문을 국가부문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됨.
 - 이 분야는 원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담당하던 분야인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이들 지방산업공장들이 대부분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종합식품공장의 형태로 중앙에서 장악하는 식품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식품가공부문은 원부자재의 수입수요가 적고, 설비투자 비용도 작기 때문에 경공업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회복하려고 할 때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외화 부족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여력이 부족한 국가가 전략부문으로 선택하기에는 적합한 분야인 것으로 평가됨.

-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8.3)를 개최하는 등 경공업부문의 제품 개발 및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 지속

라.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기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금속 등 선행부문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들 전략적인 부문의 현대화, 기술개건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금속부문에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이용하여 선철을 생산하는 기술 도입('주체철' 생산) 성과 등을 강조
 - 자체 기술에 의한 CNC 공작기계 생산을 첨단기술의 핵심 성과로 선전
 - 이외에 “공장의 현대화·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할 것을 강조하는 등 거의 모든 현지지도 공장에서 작업공정의 현대화·과학화, 기술개선 등을 이루어,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을 강조
- 또한 이들 선행부문에서의 기술개선, 현대화가 연관 산업부문의 생산증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 제5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2009.10.27~11.3)를 개최하여, 1,40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가 출품되었음.

마. 건설 · 국토관리부문

- 건설부문은 2009년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의 하나임.
 - 평양시 10만 호 주택 건설공사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만수대 거리 주택 건설(6~18층짜리 32개 동, 880세대)이 완공되었으며, 2007년부터 추진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설계가 완료되었음.
 - 평양시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군인 등 노동력의 대대적 지원, 대동강 타일공장 확장 등 건설자재 공급 증대 노력 등이 경주되었음.
 - 평양 창광음식점거리에 대한 개건공사가 완료되었음.
 - 주택 건설과 함께, 농업기반 건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항만확장 공사 등에 자원이 집중되었으며, 미루벌 물길공사 완공 및 제2서해갑문의 준공을 주요 성과로 보도
 - 평양~원산관광도로 보수 등을 비롯한 도로 건설을 추진

- 평양시 주택 건설 등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 등 대중동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문이 건설부문임을 감안하면, 2009년 건설부문의 생산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바. 상업 · 유통부문

-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민간에 의한 사적인 유통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공공부문에서의 상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인들이 수매상점에 물건을 가져오면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점이나 러시아 상품 전문매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영 상점들이 새롭게 문을 열고, 합작 상점도 문을 옴.
 - 또한 한 때 맥주 등의 상품에 대한 TV 광고도 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비판적인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상업자체를 억압한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민간의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이탈된 상업 및 유통 수요를 국영 상점망으로 흡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본격화된 시장통제가 부작용 노정으로 인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통제’라는 정책목표는 아직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민간에 의한 상업 및 유통은 감소되는 반면, 국영 상점망을 통한 유통은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2009년 전체적으로 상업 · 유통 부문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2. 대외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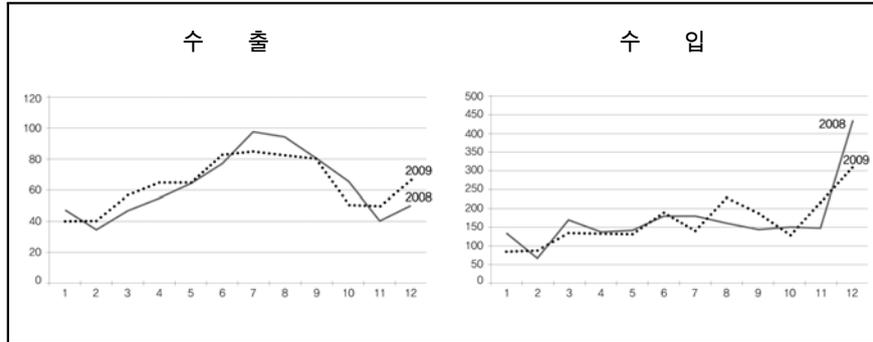
- 북한 대외무역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9년 북·중무역은 4% 감소하였으며, 남북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6월 이후 북·중무역 감소는 주로 북한 핵실험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양국관계 개선으로 3/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됨.
 - 남북교역은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하였지만, 월간 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 3월부터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가. 북·중무역

- 2009년 북·중무역은 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음.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 수입은 18.9억 달러로 7.1% 감소하였음.
 - 북·중무역 세부 통계는 8월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어 세부 추세와 구조를 파악할 수 없음.
- 2009년 6월 이후의 감소세는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과 이후 6월 13일 유엔 안보리 제재(1874호) 결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2008.1~2009.12)

(단위: 백만 달러)



- 그러나 2009년 10월 4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양국간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경협이 확대될 전망
- 2009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광물성 연료(대부분 무연탄)와 의류가 증가세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감소 추세를 보임.
 - 북한 대중국 수출의 27%(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무연탄(HS 2701) 수출은 115.4% 증가

〈표 1〉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1~7.
1	광, 슬랙, 회	118(28.3)	164(38.5)	213(29.7)	56(-62.1)
2	광물성 연료	102(-8.8)	170(66.1)	208(22.1)	210(115.4)
3	철 강	35(-51.1)	45(28.2)	78(73.6)	32(-37.2)
4	의 류	63(8.6)	60(-4.7)	77(28.0)	46(31.1)
5	어 류	27(79)	30(-30.8)	40(33.6)	16(-6.0)
총 계		468(-5.8)	582(24.3)	754(29.7)	436(3.2)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009년 8월 이후 품목별 통계 미발표.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09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 및 기계류, 전기기기 등이 감소
 - 원유는 가장 큰 수입품목으로서 수입단가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1~7.
1	광물성 연료	347(21.6)	402(15.7)	586(45.8)	183(-49.8)
2	보일러와 기계류	83(7.8)	104(25.0)	145(40.1)	76(-7.4)
3	전기기기, 장비	98(72.5)	69(-29.0)	101(45.3)	52(12.8)
4	플라스틱류	39(33.7)	52(35.4)	89(46.6)	33(15.5)
5	차량 및 부속품	28(-1.3)	54(92.1)	67(25.4)	59(58.9)
총 계		1,232(13.6)	1,392(13.0)	2,033(46.0)	895(-10.6)

주 1: 품목은 HS code 2자리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주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009년 8월 이후 품목별 통계 미발표.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나. 남북교역

□ 전년 동기대비 비교

- 2009년 남북교역은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출(남→북)액은 7.5억 달러로 16.1% 감소하였고, 반입(남←북)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

〈표 3〉 최근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반출(남→북)	830(16.1)	1,033(24.5)	888(-14.0)	745(-16.1)
반입(남←북)	520(52.9)	765(47.1)	932(21.8)	934(0.2)
교역수지	310	268	-44	-189
교역총액	1,350(28.0)	1,798(33.2)	1,820(1.2)	1,679(-7.8)

주: ()내는 대남한 반출입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 2009년 거래내용별 남북교역을 보면, 상업적거래(교역+협력사업)는 1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하였고, 비상업적거래(지원) 역시 0.4억 달러에 그쳐 65.9% 감소
- 상업적거래 가운데 일반교역(2.6억 달러, 35.9% 감소), 위탁가공교역(4.1억 달러, 0.3% 증가)은 감소하였지만 개성공단사업(9.4억 달러, 16.3% 증가)은 증가
- 비상업적거래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0.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8% 감소

〈표 4〉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항 목		2006	2007	2008	2009	
상 업 적 거 래	교 역	일 반 교 역	304(44.9)	461(51.7)	399(-13.4)	256(-35.9)
		위탁가공교역	253(20.6)	330(30.4)	408(23.8)	410(0.3)
		교역소계	557(32.7)	791(42.0)	807(2.0)	666(-17.6)
	협 력 사 업	개성공단사업	299(69.0)	441(47.4)	808(83.2)	941(16.3)
		금강산관광사업	57(-34.9)	115(102.5)	64(-44.4)	9(-86.3)
		기타경제협력사업	16(149.1)	12(-23.2)	20(66.7)	27(35.6)
		경공업협력	-	73(-)	12(-83.6)	-
협력사업 소계	372(37.3)	641(72.3)	904(41.0)	976(8.0)		
상업적 거래 합계		929(34.6)	1,432(54.2)	1,712(19.6)	1,642(-4.1)	
비 상 업 적 거 래	지 원	민 간 지 원	408(67.8)	250(-38.6)	67(-73.2)	22(-67.5)
		정 부 지 원	12(-90.4)	79(574.2)	0(-99.5)	15(3838.6)
		지원소계	420(14.8)	329(-21.5)	67(-79.6)	36(-45.8)
	기 타	사회문화협력 에너지지원 등	-	37(-)	41(10.8)	1(-98.6)
비상업적 거래 소계		420(14.8)	366(-12.6)	108(-70.5)	37(-65.9)	
총 계		1,349(27.8)	1,798(33.2)	1,820(1.2)	1,679(-7.8)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 2009년 개성공단의 생산은 256백만 달러, 수출은 2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0% 증가, 20.2% 감소

〈표 5〉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생 산	74(393.3)	185(150.0)	229(38.6)	256(2.0)
수 출	20(2122.2)	40(100.0)	34(-5.3)	29(-20.2)
반출(남→북)	223(42.0)	339(52.3)	518(52.8)	523(0.8)
반입(남←북)	76(280.0)	101(33.2)	290(181.7)	418(44.1)
반출입 합계	299(69.0)	441(47.4)	808(83.2)	941(16.3)

주 1: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주 2: 2009년 가동 업체 수는 117개, 북측 근로자수는 42,5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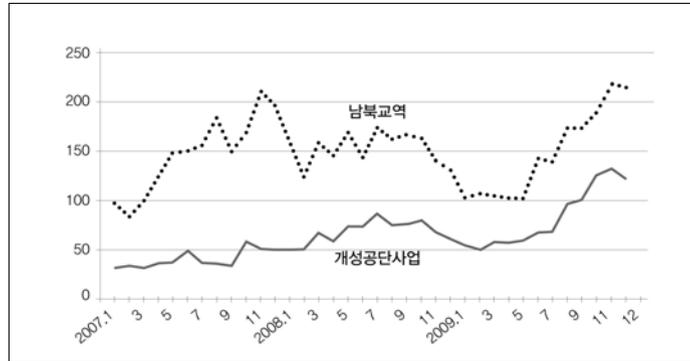
출처: 통일부.

□ 전월대비 비교

- 2009년 월별 남북교역 추이를 보면, 2009년 3월부터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 등에도 불구하고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남북교역은 2007년 10월 2.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정권교체를 계기로 크게 줄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크게 감소
 - 2009년 상반기 월별 개성공단사업도 2009년 3월 이후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동 기간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56.0%를 차지

〈그림 2〉 월별 남북교역 추이(2007.1~2009.12)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통일부.

다. 대외 경제협력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대외경제협력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국경개발계획에서도 올해 초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알려짐(일본 『NHK방송』, 2009년 12월 2일).
 -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국경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개발하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으로, 북한·중국·러시아 3국과 한국·몽골을 포함한 5개국이 17년 전부터 공동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음.
 - 북한이 탈퇴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두만강 유역 개발로 국경지역에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과, 유엔이 북한의 지난 4월 로켓 발사와 5월의 핵실험과 관련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견해가 있음.

- 2009년 상반기에는 중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성도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부분적으로 동참하면서 북·중무역도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도 호전되면서 경협 관련 다양한 합의들이 가시화됨.
 - 新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 중국기업의 남포항 진출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러시아와도 제한적인 경제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원과 「2009~2011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2009년 11월 25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조인 (『조선중앙통신』, 2009년 11월 28일).
 - 또한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식량을 지원(9월 25일~11월 17일 사이, 『조선중앙통신』, 2009년 11월 17일). 북한 통신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식량을 기증한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표시”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식량의 종류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 하지만, 러시아와 2009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경제공동위원회가 연기되는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함.
- 베트남 정부도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됨.
 - 지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음(『조선중앙통신』, 2009년 11월 28일).
- 스웨덴의 의류업체인 ‘노코 진스’가 북한 내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청바지 1,000벌을 12월 4일부터 스웨덴에서 판매한다고 발표(『자유아시아방송(RFA)』, 2009년 11월 25일).

- 노코 진스가 시판하는 북한산 청바지는 남녀용 각 2종으로 이 회사 공동대표 3명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노코 진스의 주문에 따라 전량 수출용으로 제작됨.
 - 이 회사는 청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2008년 7월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협상을 벌여 어렵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그 밖에 주목되는 경제협력은 이집트의 오라스콧이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가 2008년 12월 15일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휴대폰 가입자가 급증해 2010년 초까지 12만 명의 이용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짐(『AFP통신』, 2009년 12월 9일).
- 휴대폰은 중국산으로 가격은 200유로(약 34만 원). 선불(先拂)카드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며, 카드 종류는 3유로와 5유로짜리 두 종류가 있음.
 - 민간인은 평양 시내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함.
- 또한 전력난 해소의 차원에서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함(『조선신보』, 2009년 12월 4일).
- 북한은 풍력에너지 개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독일교회개발봉사 그리고 중국의 풍력에너지 설비협회 등과 협력 방안 논의
 - 북한은 또 올해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3차 국제풍력에너지전시회에 대표단을 파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및 중국 전문가들과 소형 풍력발전기 생산, 인력양성 등 문제를 논의
 - 이 사업은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2003년 10월 환경보호와 에너지 개발, 정보기술(IT)·원예·유기농부문의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됨.

- 이 센터는 2005년 세계풍력에너지협회와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 가입했고, 2006년 1월에는 '지속개발을 위한 세계에너지네트워크(GNESD)'의 일원이 됨.
- 앞으로도 북한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그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 연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Ⅲ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국제사회의 제재효과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유엔이 제재차원에서 6월 12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북한의 외자유치, 무기 및 불법행위에 의한 수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외자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유엔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외자유치 등 대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7월 16일(뉴욕 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개 기업·기관과 개인 5명, 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한 바 있음.
-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4월 지정한 조선광업무역회사를 비롯한 3개의 북한단체까지 포함, 모두 8개의 북한기

업 및 기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하며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

-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 보고서를 엄격하게 이행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크게 무기와 물품 금수, 화물과 선박검색, 금융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됨.

〈표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경제제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무기 수출입 및 관련 거래 금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된 금융거래·기술교육·자문·지원·서비스 구매 금지- 모든 무기 및 금융거래·기술교육·자문·서비스·지원에 대한 대북 공급·판매·이전 방지* 소형무기는 북한에 판매전 5일 이내 제재위 보고○ 금융제재<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 관련 금융서비스·이전 금지 요청, 자산동결 요청-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에 대한 교부·금융지원·융자 금지 요청* 인도적 지원·개발목적·비핵화 진전 예외-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에 재정지원 금지 요청○ 화물검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국 국내법·국제법에 부합되게 북한 화물검색 요청-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국(旗國) 동의하에 공해상 선박검색 요청-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물자, 선박 제공 등의 지원 행위 금지(인도적 목적 제외)

□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

- 제재효과와 관련해, 제재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기업과 개인,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 등이 이전에 비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핵실험 이전에도 북한의 외자유치 및 대외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국이나 한국 이외의 나라들과는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제재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다만, 유엔제재 대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품 및 군수물자 등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북한의 외화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함.

- 예를 들면, 중국정부와 기업도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유엔제재에 따른 북한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중국의 철강업체인 중광(重鑛)그룹은 2009년 7월 초 선양 북방중공업(NHI)에 북한 헤산의 동광산 개발을 위해 의뢰한 설비 제조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함(『연합뉴스』, 2009년 7월 29일).
- 중광은 2006년 11월 헤산 동광산을 개발키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헤산 동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NHI에 의뢰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2009년 4월 제재 대상 북한기업 리스트에 등재됨.
- 중국은 2009년 7월 24일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에 밀반입 되려던 전략적 금속인 바나듐(vanadium)을 압수했으며 8월에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북한산 광물의 통관을 제지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군수물자 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연합뉴스』, 2009년 7월 29일).

-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
 -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기관의 무역·금융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개인들이 평소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또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평양 등 북한 현지를 방문한 외국 전문가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가시적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 예를 들면,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말 방북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및 관찰자들은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징조는 보지 못했다고 발언
 -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함께 지난달 말 방북하고 돌아온 니콜 피네만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연구부장은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징조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연합뉴스』, 2009년 12월 9일)
 - 그에 따르면 최근 ‘150일 전투’가 끝나서인지 평양 시내의 모습은 매우 깨끗해졌으며, 건물에는 새로운 도색 작업이 이뤄지는 등 18개월 전 방북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 특히 그는 “휴대전화의 확산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미국 방북단을 안내한 안내원은 물론 운전사 등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전달

- 또 거리에는 새로운 핸드백과 신발을 신은 주민들의 모습이 목격됐고, 외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비롯한 새로운 수입차들이 많이 보였다고 소개, 아울러 평양 시내에 택시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

□ 유엔 회원국들의 성실 이행 변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및 1874호는 이들 대상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도 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 결국 제재의 효과는 각국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태국정부가 2009년 12월 12일 북한제 무기를 신고 가던 화물기(IL(일류신)-76)를 압류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 1

800

- 특히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 동참 및 참여 수위 여부가 제재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투트랙’ 방식을 사용
 - 중국정부는 유엔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
- 결국 중국은 제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기존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협력은 추진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나. 시장통제 강화와 화폐개혁

- 북한당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던 종합시장의 농민 시장으로의 환원 등을 단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2009년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시장 통제와 계획경제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1) 시장에 대한 통제의 강화

- 2009년 3월경에 장마당에서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면서 강력한 시장단속을 예고함.
 - 여기에서 공지된 ‘통제물품 목록’에는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표 7〉 장마당의 주요 통제물품 목록

유 형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한국 상품, 합영회사(개성공단 및 합작회사 제품) 상품, 유엔물자와 약품(유엔 및 국제기구 보급품과 약품)들 ○ 군인들의 피복류나 군 생필품, 군수물자 등
유 통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회사들에서 수입된 일체의 물품 ○ 외국산 가정 전기용품(가전제품) ○ 수입산 완구류 ○ 국가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 ○ 출판물 및 수공예품 ○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농토산물 ○ 개인이 만드는 대형 가구류 ○ 의약품 ○ 일체의 자동차 부품 ○ 개인이 만든 식료품과 포장하지 않은 식료품(식품) 등
개 별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 가정용 전기용품: 텔레비전(TV), 녹화기(비디오), 녹음기, 반도체라디오, mp3, 외국산 CD(공CD), 전기 밥가마(전기밥솥), 전기담요, 냉동기(냉장고), 세탁기, 전기불판(후라이팬), 등 ○ 건재류: 철문, 쇠살창 ○ 완구류: 완구용 무기류 일체, 괴상한 소리를 내는 인형과 놀이감 ○ 출판 수공예품: 일체 국가 출판서적, 교과서, 각종 컴퓨터 인쇄물, 외국 서적, 증명서(신분증), 개인들이 만든 수예 및 공예작품 ○ 대형가구류: 소파, 이불장, 침대, 해면이불 및 깔개, 0.5평방 이상 대판거울(대형 거울) ○ 의약품: 담배 끊는 약, 임신 중절약, ‘몸내는’ 약, 국가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모든 의약품 ○ 이외 모든 해산물, 지방 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일체의 물품(된장, 간장도 속함),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농토산물, 보석화, 조선화, 안경, 보석 목걸이 및 반지, 외국산 가방류, 외국산 담배, 외국산 ‘손시계’ 및 전자시계 등

출처: 『NK 지식인 연대』, 북한 관련 뉴스, 2009년 3월 17일.

- 2009년 5월에는 각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당의 의도대로 관리 운영할 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8호, 2009년 5월 12일)
 - 차관 장사와 도매 장사, 국가적으로 못 팔게 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들에서 개인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조성시켜 주는 현상, 기업소 자체로 장사관을 벌려 놓은 현상
 - 평성시장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시장 자체적으로 판매소를 만들어 장사하는 현상
 - 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현상, 손구루마 끄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 등

- 이어 “무역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유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지시문을 하달하여 시장 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함.
(『NK 지식인 연대』, 2009년 6월 1일)
 - 이에 따르면,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군부 및 보위부나 보안성과 같은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은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도록 함.
 - 또한 각종 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도 무역기관에 소속시켜 도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함.

(2) 화폐개혁의 배경과 파급효과, 전망

- 북한은 화폐개혁으로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대 1’로 교환, 실시 초기 1세대당 구화폐를 10만원까지만 교환해 준 것으로 추정됨.

□ 화폐개혁의 목적과 배경

- 조선신보(12.4)에 따르면, 화폐개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및 집행을 위한 내각 결정으로 진행되었음.
 - 북한당국은 최근 시장활동의 확대에 의한 화폐화 현상(‘화폐관계’)이 지나치게 확산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관계’가 침식되고 있다고 인식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즉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 현상이 고착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전 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의 복구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임.
 - 또한 이러한 현상이 상당 수준 구조화되어 있어서 화폐개혁과 같은 폭발력 있는 조치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번 화폐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고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화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교환 상한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음.
 - 시장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자원(물품, 화폐)을 시장으로부터 국가의 관리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임.

- 둘째, 북한당국은 신권발행을 통해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에도 많은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 북한당국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국가차원의 경제회복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에 투입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임.

- 셋째, 지적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물가 안정을 통한 정부의 국가경제에 대한 관리능력을 회복하겠다는 점임.
 - 2002년 ‘7·1조치’ 이후 계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화폐 유통량의 축소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임.

- 넷째, 정치적 목적을 들 수 있는데, 시장화 현상 제어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한 체제 안정성 강화를 들 수 있음.
 -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점에서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만약 화폐개혁을 전후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할 것으로 예상됨.

□ 화폐개혁 진행경과 및 전망

- 화폐개혁 실시 이후 북한은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였는바, 시장통제 및 시장자원의 국가부문으로의 이전, 외화사용 금지, 임시가격 하달, 주민 대상 임금·배려금 지급 등을 진행하였음.
 -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는 농토산물 판매만 허용하며 공산품 등은 국영유통망 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음.
 - 2010년부터 외화사용을 금지한다는 포고문을 하달하고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회수하는 시도를 하였음.
 - 그러나 농민·노동자들은 우대하려는 정책을 진행하였는바, 신화폐로 종전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였으며 주민 대상 배려금 등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가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장통제는 주민들의 식량·생필품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인플레이션 재현으로 귀결되었음.
 - 외화사용 금지를 시도했으나, 북한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및 외화선호로 인해 시장환율도 급등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2월 이후 북한은 시장통제를 완화하고 외화사용을 재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북한당국도 화폐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일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련 동향으로 북한이 시장통제 및 계획경제체제 강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1) 김정일 현지지도 등을 통해 본 북한 산업순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산업순환 구조,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순환 구조는 그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흐름이 부분적으로 감지됨.
- 첫째, 신년사 등에서 금속부문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일 전투 등의 성과 보도에서도 금속부문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
 - 금속부문의 강조는 전력 공급 사정이 금속공업을 비롯한 산업의 가동을 제고에 일차적인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기계부문이나 설비부문에서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또한, 철강 등 금속 소재의 공급이 기계나 여타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둘째, 대형설비의 생산 여력의 부분적인 회복 가능성임.
 - 『조선신보』 등은 낙원기계연합기업소가 천리마제강 산하 보산제철소의 주체철 생산공정용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용 등 2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 중이라고 보도
 - 낙원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생산이 1990년대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표적인 대형설비 가공 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셋째, 김정일의 현지도 등을 통해 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대형 화학기업의 생산재개 혹은 능력 확장 가능성
 - 대규모 화학공업의 정상 가동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던 전력과 석탄의 공급, 그리고 수송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이들 화학공장들의 확장이 완료되고, 계획대로 2010~12년에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비료, 화학섬유, 기초화학물질 등 화학제품과 관련 원자재의 공급 증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승리자동차, 금성뜨락또르 등 1990년대 이후 민수부문 생산활동이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장들이 부분적으로 생산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됨.
 - 『조선신보』는 지난 십여 년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승리자동차가 ‘수백 대’의 상용차를 생산하였으며, 전성기때의 생산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2009년의 성과를 종합하는 기사(12.21)에서 “자동차, 트랙터 생산토대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섰다”고 선전
- 이러한 보도들을 종합하면 최근 북한의 중화학공업부문에서 부분적인 산업순환의 복구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음.
 - 원유와 식량 등 전략적인 물자가 외부로부터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금속, 기계, 화학부문의 가동률 증가와 그에 따른 내부적인 자본재 및 원부자재 공급 증가라는 재생산 구조가 축소된 상태로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의 성과와 한계

□ ‘150일 전투’ 등 대중동원 정책의 의미

- ‘150일 전투’는 대중동원 방식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이고, 각 부문에 축적된 자원을 동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중동원 정책은 1980년대까지 빈번히 사용되던 경제정책의 하나였는데 1990년대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9년에 부활한 것임.
 -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대중동원 방식이 중단된 것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대중동원 캠페인을 조직하고, 이를 강제할 역량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야심적인 생산 목표나 대형 산업설비의 신규 건설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술개선·현대화 등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정책을 펴 왔다는 사실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에 특정 부문에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 내부에 대중동원 방식의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노동력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금속 등 4대 선행부문 이외의 부문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노동력의 전반적인 생산성 역시 저하될 것임.
 - 불균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선행부문 이외 부문의 악화는 선행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 역시 감소시킬 것임.
- 또한, ‘150일 전투’ 방식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비효율적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등 평양의 대대적인 건설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투자는 아니며, 이런 면에서 자원 낭비적인 투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중동원 정책이 2010년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이 누적되어 산업부문에서 다시 심각한 병목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150일 전투

- ‘150일 전투’의 성과에 대해서는 동 계획이 10% 초과달성 되었고, 전국적으로 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선전하였음.

- 금속부문: 전투기간 전년 동기대비 강철 생산 4.5배, 압연강재 2.6배, 주철 생산 5.2배, 선철 생산 1.5배 증가(『조선중앙방송』, 2009년 9월 11일)
 - 전력부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년 동기대비 40% 증산 등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억 kWh 증산(『조선중앙방송』, 2009년 9월 12일)
 - 석탄부문: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산
 - 기계공업부문: 공작기계 26%, 발전기 14%, 변압기 20% 등의 계획 초과 수행
- 그런데, ‘150일 전투’가 개시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09년 5~6월경 ‘150일 전투’의 성과 보도가 매우 다양한 부문, 기업소에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종료 시점에서의 성과 보도는 금속, 전력 등 일부 중화학 공업과 건설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50일 전투’ 초기 다양한 분야에서 보도되었던 성과 보도가 핵심부문 중심으로 압축된 것은 ‘150일 전투’가 북한 경제 전체가 아닌 특정 부문 중심의 생산활동 증가를 초래하였기 때문일 수 있음.

□ 100일 전투

- 북한은 ‘150일 전투’가 종료된 이후 다시 ‘100일 전투’를 개시함으로써 대중동원 정책을 향후에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100일 전투’는 4대 선행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금속공업부문의 기술개진, 생산공정 완비, 철강재 생산 향상
 -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연대적 혁신

- 화학공업부문의 남흥, 흥남가스화대상공사 완료, 화학비료, 기초화학제품 생산 증대
 - 건재, 임업, 경공업 등 경제건설 전반에 증산
- ‘100일 전투’의 성과에 대해서는 ‘100일 전투’ 50일 성과라는 형태로 선전되고 있는데, 50일 동안 전년 동기대비 생산이 1.3배 증가하였다고 주장
 - 아울러 ‘150일 전투’의 성과 보도와는 다소 달리 매우 다양한 분야, 그리고 구체적인 공장·기업소가 언급되고 있음. 특히 기술개건이나 현대화 등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150일 전투’의 후유증으로 ‘100일 전투’는 실질적인 자원 투입을 통한 증산을 도모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요 설비의 개건·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독려하고, 정치·사상적 측면이 주를 이루는 캠페인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함.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 북한의 경제정책은 ‘00전투’와 같은 대중동원 운동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음.
 - 여기에는 사회 내부의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은 ‘150일 전투’가 끝난 직후, ‘100일 전투’의 시작을 선포함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측면이 있음.

-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경제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북한경제의 한계를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음.

(2) 주요 산업부문

- 2009년 북한의 산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 실적이 다소 저하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요인으로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중단 및 국제적인 제재, 불리한 기후조건 등을 들 수 있음.
- 농업부문의 생산은 남한으로부터의 비료지원 중단, 옥수수 생장에 불리한 기후조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 감소한 411만톤으로 추정함.
 - 2009년 북한의 식량공급 사정은 2008년의 양호한 작황에도 불구하고 비축미의 충당과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지원 중단효과의 누적 등으로 2008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전력부문은 6자회담 관련 중유지원의 중단효과와 석탄증산 및 고칼로리 탄 수출 중지, 원산청년발전소와 영변발전소 가동 등의 효과들이 중첩되어 전년도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생산은 '150일 전투' 등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타 광업부문의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움.
- 제조업부문은 생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중화학공업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금속과 대형 산업설비의 제작이 늘어난 기계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
 -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멘트 등 전자재부문에서도 일부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경공업은 남한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지원 효과 소멸 등으로 방직부문을 제외하고는 생산 실적이 전년에 비해 부진
- 건설부문은 평양시 10만 호 주택 건설, 대규모 발전소 건설, 단천항 개발 등으로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
- 상업·유통부문은 민간부문의 위축이 공공부문의 확대에 상쇄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추정

(3) 대외무역 및 협력부문

- 2009년 북·중무역은 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음.
 - 북·중무역의 세부 통계는 2009년 8월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어 세부 추세와 구조를 파악할 수 없으나, 2차 핵실험으로 인한 감소세는 다소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2009년 남북교역은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했으나, 2009년 3월부터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출(남→북)액은 7.5억 달러로 16.1% 감소하였고 반입(남←북)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
 - 특히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56.0%를 차지(2008년의 경우 44.4%)
- 2009년 월별 남북교역 추이를 보면, 2009년 3월부터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 등에도 불구하고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남북교역은 2007년 10월 2.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정권교체를 계기로 크게 줄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크게 감소

- 2009년 상반기 월별 개성공단사업도 2009년 3월 이후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동 기간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의 56.0%를 차지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공조조치 등으로 대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외경제 협력 실적은 매우 저조했음.
- 북한이 2009년 하반기에 대외 유화기조로 전환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중국과 '북·중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추진 중이나, 실제 이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가. 북·중관계를 통해 본 북한경제 변화 전망

□ 대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

- 북·중무역은 북한의 낮은 구매력, 지리적 요인, 변경무역의 세제 감면 혜택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중국의 국제정치적 이해가 크게 작용
- 중국은 북한에 대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으며 G-2체제를 구축할 만큼 영향력이 커져 있어 국제사회의 결의와 다른 독자적 행동이 가능
- 지금까지의 북·중무역을 보면 중국은 북한을 제재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기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북한을 관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¹⁾
 -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상이 사치품인데 대중국 무역에서 사치품의 비중은 극히 낮아 제재의 효과가 없었고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무기금수 부분에 국한하였음.
- 북한은 최근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중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 더욱이 여타 국가들이 대북한 무역을 줄이게 되자 중국은 이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한편 2009년 7월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향후 북·중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

- 한편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및 다변화에 나서겠지만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중무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체제안정에 기여

- 물자공급 확대, 물가안정 등 북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
- 북한당국은 기업들에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중국 무역을 통해 물자를 확보하여 생산·판매함으로써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특히 군부 등 자원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기관, 기업일수록 대중국 무역을 통해 큰 이득을 얻어 왔음.
- 그러나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계획부문의 정상화 노력을 확대하고 있어 과거 일부 기관에 혜택을 부여하는 무역방식에서 탈피하는 등 무역체계가 바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을 통해 원유, 식량 등 주요 원자재와 소비재를 의존하고 있어 북·미관계 개선이 되기 전까지 중국은 북한체제 안정의 유일한 생명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동북3성 개발 및 대북진출

- 중국정부는 2009년 들어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중앙과 성(省) 정부차원에서 연이어 발표²⁾
 - 요녕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2009.7), 장춘~길림~두만강 지역 경제권 개발(2009.8), 단둥~통화시 개방선도구 경제개발(2009년 9월) 등³⁾
 - 요녕·길림성은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⁴⁾

- 한편 북한의 대중국 무역도 동북3성에 집중(대중국 무역의 70~80%)되어 있는 바, 향후 중국은 이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이를 경제성장과 개혁·개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북한은 자생적 공급기반을 확충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원자재 공급처이자 상품판매 시장으로 전략, 전형적인 선진국과 후진국간 무역 형태를 보여 왔음.
 - 또한 화폐개혁 이후 계획경제의 정상화 노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중국은 「동북지방 진흥전략」(2003.3)에 의거, 요녕·길림·흑룡강 등 동북3성을 첨단 산업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동북산업기지 진흥계획」을 시행(2009.8.17)

3) 중국은 대련시를 중심으로 인근 해안도시(단둥外 4개)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동북아경제 허브로 육성하는 '요녕성 연해경제벨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2009년 7월 中 국무원 비준)

4) 요녕성은 북한의 유초도-비단섬(압록강 하구) 맞은편에 총면적 2,935만여 평(97km²)의 '요녕 단둥 임강산업단지' 조성을 결정, 부지공사 중임. 길림성은 장춘~길림~두만강 지역 일대를 '경제개방 선도구(물류개방구)'로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로 이용할 계획인데 이 계획의 중심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으며 북한의 나진항은 그 전초기지가 될 것임. 단둥시(요녕성)~통화시(길림성)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선을 따라 경제구역을 형성하는 '동단 경제개발 개방선도구역'의 개발 추진

- 한편 2010년 북한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나. 식량 수급 전망

- 2010년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량 규모는 411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량 소요량 460~540여만 톤에 비해 50~130여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임.
- 2010년에도 남한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한계계층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남한의 계속된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 및 당국의 비축미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다면 2010년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어느 해보다 악화될 수 있음.
-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대북 식량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진전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만일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소될 수도 있음.
- 2010년 곡물 시세는 현재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시장 선물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곡물 가격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북한은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시장에서의 식량가격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판단됨.

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당면과제

□ 인플레이션 억제: 국가의 물자 공급능력 확대

- 화폐개혁 이후 국가의 공급능력 확충 미흡으로 인해 물가, 환율 등이 급등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1월말 기준으로 북한내 쌀가격은 kg당 600원선(구권 60,000원), 시장환율은 1달러당 530원(구권 53,000)선까지 상승하였음.
 - 이는 화폐개혁 이전 쌀가격(구권 2,300~2,500원) 및 시장환율(구권 3,000원대)의 10배 이상 되는 수치임.
 - 초기의 물가 폭등은 정부의 가격 발표가 지연된 것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물자에 대한 국가의 공급 능력이 뒤따르지 않아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의 국가공급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생산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나 당장은 외부사회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역할이 주목됨.

□ 시장활동의 재확산 방지

- 정부로서는 주민들이 다시 시장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식량 공급을 재개하였으며,
 -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관리규칙에 따라 식량판매를 금지시키고, 불법판매와 암거래 상품은 무상몰수하겠다고 밝혔던바 있음.

- 시장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북한당국으로서는 향후 국가공급능력이 확충된다면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일반주민들은 당국의 규제와 단속을 피해 암시장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제활동은 음성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국의 단속과 주민들의 숨어들기가 교차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권력계층의 부정부패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 강화와 주민들의 불법적 경제활동의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
 - 동시에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와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주민들의 외환 선호 현상 극복: 외환 사용과 보유 규제

-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외환 관련 3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첫째, 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신흥 부유층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 둘째, 화폐개혁 이후 북한화폐에 대한 신용도 하락과 이에 따라 가치 보관 수단으로 외환 보유를 선호하는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 셋째, 시장에 유통되는 외환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부족한 외환 문제를 해소하는 것
- 북한당국은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북한화폐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 극복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으로 보임.

□ 공식경제부문 활성화: 금융부분의 제도 개혁

- 북한 국영공장·기업소들의 자재 공급체계와 상품의 유통체계 복구는, 국가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유통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또는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북한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기업이나 국영상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의 사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금융시스템에는 주민들의 예금을 유도하기 위한 예금의 자유로운 출금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화폐개혁의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북한당국은 금융부분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조치가 작동하려면, 자금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2010년 북한경제 전망

(1) 추진여건

□ 대내 환경

<정치 환경>

- 체제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 작업이 주요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0월 당창건 65돌을 맞아 당 기능의 강화와 당조직의 역할 제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10월 당창건 65돌을 기념하는 행사나 이벤트를 성대하게 진행함으로써 당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경제 환경>

- ‘150일 전투’와 연이은 ‘100일 전투’로 인한 일반주민들의 정부 동원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 또한 화폐개혁 이후 식량·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된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계획경제체제 강화 및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개발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외 환경

- 북한은 체제 정비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내부 아젠다에 몰두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것임.
 - 이를 위해 2010년에도 일단은 2009년 하반기에 보여준 유화적인 협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도발을 통한 대화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대미관계
 - 북·미간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대하여 핵보유국 인정과 핵군축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북·미대화는 진전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현상 타개를 원하는 북한의 전격적인 양보나 추가적인 도발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타협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음.
- 대중관계
 - 대중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은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관계
 -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지속으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남북경협 역시 큰 폭의 증가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됨. 다만,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경제정책

□ 대내 경제정책

- 2009년 화폐개혁 조치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부문에서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내부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당국은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과 함께 사유재산 확대 현상을 억제하고 국유기업을 비롯한 사회주의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이에 따라 과거 시장부문이 수행해왔던 고용, 식량배분 등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다시 떠맡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대내 경제정책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다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제시함에 따라 농업 및 경공업부문의 정책 내용과 변화가 가장 주목되고 있음.
 -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통한 후계체제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

전선'으로 선정하고, “전 당적, 전 국가적 힘을 집중해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는 “총자혁명 방침, 두벌농사 방침, 감자농사혁명 방침,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빛나게 구현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당국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총공세에서 새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 비결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 데 있다”고 밝혔듯이 각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사업이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년공동사설은 “첨단 돌파전의 기본 전선인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국방공업이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됨.
- 2010년에는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계획경제 관리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 추진해온 노력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부문의 질서를 복원하는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배급 및 보상체제의 정상화, 임금 및 가격의 조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법, 종합설비수입법, 노동정량법, 농장법, 수출품원산지법 등 경제 관계 법령 6건의 제정을 발표하였음.
 - 이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중앙집권적 요소 강화 등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불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외자 도입 전망이 불투명하면 할수록 내부적 자원 동원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신년 초인 2010년 1월 2일부터 모든 주민들을 거름 생산에 동원하고 있음(『데일리NK』, 2010년 1월 2일).
 - 거름생산뿐 아니라 파고철(고철), 파지(휴지), 파고무(재생고무), 파비닐(재생비닐) 등을 바치라는 과제가 직장과 조직별로 하달된 것으로 알려짐.

□ 대외 경제정책

-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품 공급능력 확대를 비롯한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2010년 인민생활 향상에의 기여, 강성대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유효하게 작동될 경우 대외 경제협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09년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시에 합의된 각종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될지가 주목할 대목임.

- 따라서 2010년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은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대외 경제협력부문에서의 예상 외 성과도 가능함.

-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라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를 방문하고, 2010년 초에는 특별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이 무역지대가 새로운 경제특구로 확대·발전될 수 있을지가 주목됨.
 - 북한은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함.
 -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12월(추정)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의 라선대흥무역회사 등을 방문하여,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 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지시(『조선중앙통신』, 2009년 12월 16일)한 것도 보다 전향적인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임.

- 한편, 2009년 말 화폐개혁 조치 이후 환율의 불안정 등이 대외 무역 종사자들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2010년 상반기에는 대외무역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암시장에서 북한 신권의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업자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걷어 들이는 등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 주요 산업부문

- 핵문제가 북·미회담 및 6자회담 등을 통하여 진전되어 나간다면 북한경제는 2008년에 보여주었던 미약한 성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북지원 본격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북·중무역 및 남북경협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하고, 외화획득에 있어 석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다소 완화되어 국내 석탄 공급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시장통제, 화폐개혁, 식료일용공업성 창설 등으로 나타나는 소비재 부문에 있어서의 공식부문의 복구 움직임 역시 대외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른 소비재 공급 역량의 증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2010년 신년사에서 농업 및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금속을 비롯한 선행부문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수년간 강화된 중공업 중심 정책, '150일 전투' 등에 의한 특정 부문으로의 자원 집중 등에 따라 확대된 산업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경공업 공장·기업소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던 지방산업의 가동 증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원료, 자재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을 역설하고 있어 지방산업공장을 중심으로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원부자재 공급 증가에 추구될 것으로 전망됨.
 - 단, 북한의 투자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공업부

문에 대한 투자는 방직 등 섬유·의류부문, 신발, 식품가공 등 일부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자체적인 역량의 투입만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임.
- 2010년을 농업,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한 것은 금속 등 선행 부문의 재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함.
 - “강제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라는 구절은 금속부문을 시발로 하는 자본재 공급 역량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줌.
 - 금속부문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2009년의 금속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와 이에 따른 부분적인 증산 등에도 불구하고 철강 등 금속소재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방직기계공장 현지시찰은 방직부문의 상대적 호조와 그에 따른 방직기계의 공급 증대 필요성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의 경제정책 노선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대외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할 때 2010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금속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평양시의 건설사업 지속 등으로 2009년에 비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핵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계속되는 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는 처하지 않겠지만 경

제상황은 2009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식량난이 심화되어, 탄광 등 생산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감소하여 생산이 줄어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 등 대중동원 정책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도는 약화되고, 정치적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산업공장의 건설 및 현대화, 농업 및 경공업부문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 증대 등 대중동원 정책의 지향점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대외 경제부문

- 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북·중무역을 제외한 북한의 무역은 정체될 것으로 보임.
-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타 국가와의 무역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따른 대외관계 개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중무역은 중국정부의 동북3성 개발, 2009년 10월 4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양국간 관계가 개선될 조짐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경협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09년 7월 1일 요녕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고,
- 요녕성 단둥시와 길림성 통화시는 통단경제벨트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단둥과 통화 간 철도와 고속도로가 2011년 중·후반에 완공될 예정임.

[부록]

2009 북한경제 주요실적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천군, 40여 리의 새 물길공사 완공(평방) · 보통강 대대적 준설(조선신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시, 5개의 샘플공급소 신설(중통)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생산공정들을 종합적으로 자동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통합 조종체계 도입(중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결정서 조인(중통) · 기계공업성의 2월 계획 111.1% 결속 및 임업성의 산지 통나무 생산 131.2% 초과 등 건설 건재·철도운수부문 및 흑색광업관리국 등 2월 생산 초과달성(평방) · 경공업과학분원 식료연구소, 콩우유(두유) 가공기술 개발(중통) · 금성학원 컴퓨터 수재반 용도의 새 교사와 기숙사 신축(중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2월 3G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후 가입자 2만 명 돌파(조선신보) · 平南 은천군의 새로 개간한 간석지에 사탕수수 재배 성공, 지난 해 천 수백 톤 수확(중통) · 北-러, 4.27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 조인(중통) · 산림과학분원 경제림연구소, 수확량이 높은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중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탄광,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화에 따라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상반기인도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노동신문, 중방) · 朝中 정부들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 제43차 회의 의정서, 5.7 평양에서 조인(중통) · 농업과학원, 병해충구제방법 및 수경재배에 의한 감자원종생산방법과 이용이 간편한 농약 개발에 성과(중통)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기관차대의 1,500만km 무사고 주행목표 달성(중방) · 平北 운전군, 청정1호발전소 개건 완공(중방) · 벽성군에 버섯공장 건립(중방) · 국가과학원 고려생물약센터, 병충해 방지와 수확률에서 우월성이 확보된 '식물성종자 피복제' 개발(중통) · 원산농업대학, 현대적인 최신식 토양식 무공해 온실 새로 건설(중통)

일	내 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제강소 일꾼-노동자들의 수직로 건설 완공 소식 보도(중방) ·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전극산화방지제 개발(중방) · ‘150일 전투’ 제시 이후 지난 100일간 강철생산 계획 101% 달성(평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건설건재대학, 세척율 90% 이상이며 환경오염이 없는 ‘큰돌세척제’ 개발(중통) · 전자재료연구소, 적외선복사체에 의한 전동기합침절연물건조기술 개발(중통)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원리탄광, 8.25 현재 인민경제계획을 108%로 초과 수행(평방) · 김정일 위원장이 8.28 시찰한 강원도 원산제염소는 연간 1만 5천 톤 생산(노동신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무연탄 다량채굴공법’ 연구 완성(중통)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정보센터 과학자들, 온봇설계·본배열·검사와 수정 등 모든 공정을 컴퓨터화 한 ‘피복설계지원체계’ 연구 개발(중통) · 8월 생산계획이 119%로 초과 수행(중방) · 태양에너지기발광합작회사가 전력수효에 맞춰 태양전지제품 생산(중앙TV) · 농업부문 과학자들, 새로운 ‘이동식 다곡종탈곡기’ 개발(중통) · 평양천연향료연구센터, 청송향계열제품 개발(중통) · 개천철도국, 개천↔순천 철길구간 콘크리트침목공사 완료(중방) · 덕천갱목생산사업소, 8월 말 현재 동발나무 생산계획 125% 수행 등 150일 전투 계획 완수(중방) · 단천제련소(咸南), 아연생산공정에 필요한 복합재료제품의 국산화 실현으로 ‘내산펌프와 수지관’ 새로 개발(중통) · 2.8비달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공사의 하나인 ‘물감생산공정’ 건설 완공(중방) · 원산군민발전소 1-2호 발전소 발전기실 기초굴착공사 완료(중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 아바나에서 10.1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 체결(중통)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9월 석탄생산계획 101% 최고생산 등 각 석탄공업부문 9월 석탄공업성적 석탄생산 계획 100.4%로 지난해 비해 212% 생산혁신(중방)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新개발 ‘유기질발효촉진제’ 이용 농작물생산 성과(중통) · 강원도 원산항 2호 부두 확장공사 완료(중방) · 원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자매관계 설정 및 친선과 협조 강화에 관한 협정을 원산에서 10.19 조인(중통) ·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기 개발하고 개성시·운전군·향산군 등 현장에 성과적으로 도입(중방) · 원산시, 불장식(네온등빛 등 50여 개 대상) 2단계 공사 완료(중방) ·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 平壤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설계 완료(조선신보) · 신의주↔낙원도로 개건 확장공사 완공(중방)

월	내 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대진청년제업소의 일꾼-근로자들의 지난 10.16 현재 연간 소금생산계획 115% 초과 생산(중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산군(平北) 내 당원들과 일꾼들, 수집 정보의 ‘소금밭’ 새로 건설(중방) · 철도운수부문 일꾼들, 10월 수송계획 117.7%로 초과 달성(중방)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새로운 폐열회수이용기술 개발(중통) · 평양기초식품공장, 새로운 기능성기초식품 철강화간장(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우수 평가) 연구 개발(중통) ·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고 60% 이상 절전형의 새 무궤도전차 시제품 생산(중방) · 러시아, 대북 식량지원 완료(중통) · 도로건설 및 보수·강, 하천정리·나무모 생산 등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 이룩(중통) · 함경남도에 현대적인 ‘백운산종합식료공장’ 건설 및 시운전 완료(중방) · 국가과학원-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과, 2009~2011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11.25 조인(노보시비르스크)(중통)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12.10 500여 동 새집입주 및 「도평 2다리」(평양시 강동군) 건설(평방) · ‘정방산종합식료공장(黃北 사리원시) 완공 및 ‘청류폭포 등산길(평양 모란봉)’ 개건(중방) ·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에서 ‘다목적태양열온실(토벽식태양열온실형태, 남새재배구역·집집승우리·메탄가스발효탱크·양어구역 등)’ 건설(중통)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1만프레스의 주체식 CNC화 실현, 생산능력 10배 성장(중통) · 北-브라질, 「무역협정 수정의정서」 12.21 평양서 조인(중통) · 판교임산사업소, 平北 정주시·구성시 및 평양철도대학 등에 金父子와 김정숙 형상 ‘모자이크벽화’ 각각 건립(중통)

2009 북한경제 주요행사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4 김일성의 평성시 ‘삼화협동농장’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이태남(平南道黨 책임 비서) 등 참가(중방) · 1. 5 김정일 ‘예성강발전소’ 현지도 기념보고회, 박초영 등 참가(중방) · 1. 7 공동시설 관철 농업근로자들 쉼기모임(사리원 미곡협동농장),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중방) · 1. 7 공동시설 관철 쉼기모임, 덕성탄광 종업원들 김병팔(직총 중앙위 위원장) 등 참가(중방) · 1. 7 새해 공동시설 과업 관철 청년전위들 쉼기모임(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앞), 김중린(黨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중방) · 1. 9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공동시설 관철 쉼기모임(당 창건기념탑광장), 김중린(黨비서)·김병팔(직총위원장/보고), 김진하(평양시黨委 비서) 등 참가(중방) · 1. 9 여맹원들의 쉼기모임(개선문광장), 김중린, 노성실(여맹 중앙위원장), 김진하(평양시 당비서) 등 참가(중방) · 1. 9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부문공장·기업소 및 채취, 기계, 화학공업, 임업부문 공장기업소 등 각 부문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10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중방) · 1.12 경공업·수산업·상업부문 단위들, 공동시설지 쉼기모임 개최(중방) · 1.13 노동적위대 창건 50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 김영일(내각총리),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당 축하문 전달), 김격식(軍 총참모장), 김성규(黨 부장/보고) 등 참가(중방) · 1.14 새해 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건설건재·국토·과학·보건부문(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함남국토환경보호관리국·국가과학원·조선적십자종합병원등) 단위들에서 쉼기모임(중방) · 1.19 금성뜨락또르공장,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 위한 종업원 쉼기모임 · 1.19 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평방) · 1.20 평양깎공장에서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평방) · 1.20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진행(중방) · 1.22 ‘인디아공화국의 날’ 즈음 인도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北-인도친선 평양구두공장), 駐北 인도 대사 등 성원들과 전영진(北-인도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중통)

월	내 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2. 3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제62차 전원회의(평양), 김병팔(위원장, 보고) 및 직총 중앙위원, 직맹 일꾼들 참가(중방) · 2. 4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최룡해(황북당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중방) · 2. 5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30돌 즈음 이란 사진 및 수공예품 전시회(중방) · 2. 6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9차 전원회의(평양)(중방) · 2.10 2.16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당창건 기념탑 광장, 경축공연-만경대 농장)(중· 평방) · 2.11~13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함경남도 내 농장·기업소들)(평양) · 2.13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쫓기모임(중방) · 2.13 함경남도 군중대회(함흥광장)(중방) · 2.26 김일성 평성합성가죽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중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8 최고인민회의의 12기 대의원 선거진행(중통) · 3.16 朝-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돌 관련 사진전시회(평양국제문화회관)(중통) · 3.22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종업원 쫓기모임(중방) · 3.23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 암모니아 생산공정 조기완공을 위한 건설자들의 쫓기모임, 태중수(내각부총리), 리무영(화학공업상) 등 참가(중방) · 3.23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건설에서 공노있는 기술자·건설자 및 일꾼들에 대한 표창식(중방) · 3.23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청진시), 홍석형(黨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중방) · 3.24 파키스탄의 날 즈음 친선모임(조선파키스탄 친선 평양일용품공장)(중통) · 3.26 단천마그네사공장, 김정일의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중방) · 3.26 평양 제1백화점, 김정숙 방문 60돌 기념보고회(중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 모내기과 김매기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사리원시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미곡협동농장), 이용철 청년동맹 1비서, 고인옥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등 참가(중방) · 4. 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김영춘(인민무력부장/보고), 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가(중방) · 4.22~28, 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중통) · 4.23 黃南 재령군 농업근로자들, 전국 농근맹 조직에 모내기 독려 쫓기모임(삼지강협동농장),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중방)

월	내 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8 문평제련소 석회질소비료 생산공정 착공식(중방) · 4.29 백송종합식료공장 착공식(중방) · 4.29 서포닭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장인수(평양시 黨비서) 등 참가(중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3 고산과수농장, 김정일 현지도 기념 보고대회(중방) · 5.4~5 제11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인민문화궁전)(중통) · 5.11~14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3대 혁명전시관), 오수용(내각부총리), 오룡철(무역성 부상, 축하연설) 등 참가(중통) · 5.11 철도성 운수설계연구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중통) · 5.15 平北道에 종합식료공장 건설 착공식(평방) · 5.16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등 희천시 내 공장·기업소들,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7 金父子의 보산제철소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중방) · 6. 9 平南 영원발전소 준공식, 최태복(黨비서, 축하문 전달), 광범기(내각부총리, 준공사) 참가(중통) · 6.19 남북 당국 간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중방, 평방, 중앙TV)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7 함흥반도체재료공장·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종업원, 김정일 현지말씀 철저히 관철 궐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7.22 전천착암기공장 창립(1969.7.22) 40돌 기념보고회, 박도춘(자강도黨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중방) · 7.27 새로 건설된 「마전호텔」 준공식(咸南 함흥시 마전유원지)(중통) · 7.27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제2, 3부 시사회(대동문영화회관)(중통) · 7.29 적십자활동소개모임(중통) · 7.29 단천향을 현대적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궐기모임(평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2 김父子 구장세멘트공장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중방) · 8. 3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3대혁명전시관)(중통) · 8.3~5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인민대학습당), 중국 등 20개국 참가, 5,000여 종 전시(조선신보) · 8. 5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평양방직공장 종업원 궐기모임, 최영림(평양시 黨책임비서),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등 참가(중방) · 8. 5 김정일이 강계목장 짓가공공장에 보내준 설비들과 운전기계 전달모임(중방) · 8. 7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평양시 건설자들의 궐

월	내 용
8	<p>기모임, 김일성광장에서 김영일, 최영립, 노두철, 오수용(내각 부총리/보고), 박남기, 양호(금속공업성 부상/토론) 및 8만 여명의 군중들 참가(중앙T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6 김정일 위원장,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 및 오찬(중통) · 8.19 금속공업성 일꾼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지지모임', 김한일(금속공업성 부상), 유영학(국장) 등 참가(평방) · 8.20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및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黨사업(선군혁명영도) 개시 49돌 경축모임(중통) · 8.21 칠골농장 농업근로자들 등, '韓美합동군사훈련' 규탄 및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중방) · 8.22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김정일 현지말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 쉼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8.24 구장양어장 건설자-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중통) · 8.24~31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3대혁명전시관)(중통) · 8.27 '리비아의 9월1일 혁명' 40돌 즈음 駐北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北-리비아 친선 애국모란피복공장)(중통) · 8.28 咸南 함주군 농업근로자들, '가을걷이 및 낱알 털기' 쉼기모임(동봉협동농장),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손명심(郡농근맹위원장/보고) 등 참가(중방) · 8.31 駐北 베트남대사관성원들과의 친선모임(北-베트남친선 평양방직공장)(중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 김父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평방) · 9.1~3 전국농기계전시회(황해북도 곡산군)(중통) · 9.2~8 제10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3대혁명전시관)(중통) · 9. 3 사리원시 청년전위들,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쉼기모임(미곡협동농장)(중방) · 9. 4 제6차 전국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 전시회(평양 인민대표학생당)(중앙TV) · 9. 7 남사강 2호발전소 건설 조업식(김형직군(양강도) 고읍노동자구)(중방) · 9.10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 개막(중앙경공업제품건설본관), 허태권(경공업성 부상/개막사) 등 참가(중통) · 9.11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중방) · 9.11 성진제강연합소·김책대홍수산기업소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9.13 강계은하피복공장, 9.13 김정일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중방) · 9.13 咸北 무산군 흥남청년발전소 조업식(중방) · 9.15 제7차 전국 조선옷 전시회(청년중앙회관) 개막, 조정웅(조선옷협회 부회장) 및 식료용공업성 부상 등 참가(중방) · 9.15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내 2.8 직동청년탄광 석탄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새구역 개발과 영대탄광 벨트4갱 조업식, 곽범기(내각부총리), 김형식(석탄공업상) 등 참가(중방)

월	내 용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5 대안친선유리공장 열선반사유리 생산공정 완성 조업식, 오수용(내각 부총리),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양장군(건설건재공업성 부상 겸 공장 지배인/조업사) 등 참가(중방) · 9.16 평양과학기술대학의 1단계 건물 준공식(중통) · 9.21 5월11일 제련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중방) · 9.21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9.21~24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3대혁명전시관)(중통) · 9.23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1949.9.23) 60돌 기념보고회, 김평해(平北道 黨 책임비서)· 정연과(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중방) · 9.23~25 제7차 대황소상 전국 민족씨름경기(평양 능라도)(중통) · 9.24 김일성 노작(사회주의 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30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중방) · 9.24 무역은행창립 50돌 기념 보고회(평양, 내각, 무역은행창립 50돌 관련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중통) · 9.25 러시아 정부가 北에 기증하는 식량 기증식(咸北 라진항)(중통) · 9.28 김정일 노작(「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발표 10돌 기념 청년사업부문 연구토론회(청년중앙회관), 김중린(黨비서), 이용철(청년동맹 중앙委 1비서) 등 참가(중방) · 9.29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궐기모임, 조선인민경비대 박춘웅 소속부대, 발전소건설 현장지휘부, 철도성 등 희천2호발전소 언제 및 물길굴공사 참가 단위들에서 각각 개최(중방) · 9.29 미루벌 물길(황해북도 곡산군-신계군) 준공식(중통) · 9.29 몽골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北-몽골친선 정방협농)(중통) · 9.29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군인들의 궐기모임(중방) · 9.29 평북 제련소 유산직장 조업식(중방) · 9.30 北-이집트 친선 및 경제협조 발전에 기여한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콥전기통신 회사 총사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의식(만수대의사당)(중통) · 9.30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협조사업 재개 관련 행사(駐北 유엔개발계획대표부)(중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 남구주택건설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중방) · 10.6~7 평양방직기계공장·평양메기공장·대동강식료공장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0. 8 타조목장 현대화에 이바지한 일꾼들에 대한 표창식(중방) · 10. 9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일성의 현지지도(1959.10.9) 50돌 기념보고회(중방)

월	내 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3 또마슈 슈체빠놉스키(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駐北 폴란드 대사와 성원들 참석(중통) · 10.15 사리원시 미곡협농 · 황해북도예술단,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꺾기모임 진행(중방) · 10.16~18 '북·중 친선의 해'를 기념 우표 전시회(중국 베이징)(중통) · 10.26 中 조선전선 참전 59돌과 우의탑 건립 50돌 즈음 駐北 中 대사관과 만향집단공사에서 우의탑에 '태양전지가로등'을 기증 행사(중통) · 10.26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 참가 '중대군인들 공연(만수대예술극장)', 黨과 軍隊 ·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 성 · 중앙기관 일꾼 등 관람(중통) · 10.27 9.26 종자돼지공장과 10.22 돼지공장 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0.27 대흥청년1호발전소 준공식, 리태남(平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석(중방) · 10.27~28 북-수리아경제공동위 제6차 회의(만수대의사당)(중통) · 10.28 김정일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양경복(조선노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대형철(사회과학원장) 등 참가(중통) · 10.28 수도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지도 과업관철 꺾기모임(4.25문화회관)(중방) · 10.29 '알레리 쉰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와 성원들 친선노동(平南 친리마군 고창협동농)(중통) · 10.30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 준공식, 광범기(내각 부총리), 정연과(식료일용공업상/준공사) 등 참가(黨 중앙委 「감사문」 전달)(중방) · 10.30 덕지강 6호 청년발전소 준공식, 태중수(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중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2 희천시 내 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등 여러 단위들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1. 3 駐北 쿠바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北-쿠바친선 '화성협동농장(평양시 용성구역)' 친선노동(중통) · 11. 4 장자강발전소 창립(1949.10.10) 60돌 기념보고회, 조효형(자강도黨委 비서)등 참가(중방) · 11.7/9 수풍발전소와 平北道 닭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꺾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1.11 평북 압록강계기종합공장 · 수풍베어링공장 · 10월10일공장 · 압록강일용품공장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꺾기모임(중방) · 11.11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성원들 친선노동(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중통) · 11.11 駐北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대표, 自國 9월1일 혁명 40돌 즈음 이룡남(무역상) 등 초청下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중통)

월	내 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1 삼지연 고려약공장 조업식, 김히택(양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중방) · 11.14 평안북도, 김父子 현지도도 20돌 기념보고회(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루벌 물길 준공, 금진강 구창청년발전소, 덕진강 6호 청년발전소, 대동강식료공장, 물감-농약기구건설 및 만수대거리 새집들이 등 100일 전투성과 선전(중방) · 11.29 운산공구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중통) · 11.30 평안남도 '안주121호 종이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중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3 희천발전소 건설 참가 희생자 강일(조선인민군 군관)에게 「노력영웅칭호」 수여식, 김우호(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가(중통) · 12. 4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농장원 쉼기모임(중방) · 12. 8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 공연(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시·군 및 희천2호발전소 건설장)(중통) · 12.10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닭공장, 김정일 현지도도 1돌 기념보고회 각각 개최(중방) · 12.16 駐北 중국 유효명 대사,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초청, 2010년 새해 즈음 인민무력부 일꾼들 위해 연회 개최(중방) · 12.16 강계시와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 12.21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만경대구역 철골농장), 한경송(농근맹 부위원장/보고) 등 참석(중방) · 12.22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여맹원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8돌 즈음 경축 모임(중앙노동자회관, 여성회관) 각각 개최(중방, 평방, 중통) · 12.22 금진강 구창청년발전소 준공식, 태종수 함경남도 당책 참가(중방) · 12.24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도도 1돌 기념보고회(중방) · 12.24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 대표단, 평양 도착 환영행사(중방) · 12.25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 환영연회(인민문화궁전과 목란관), 환영 보고대회(중방) · 12.2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중방) · 12.25 평양예방약공장 왁진직장 준공식, 노두철 내각부총리 등 참가(중방) · 12.27 咸北道內 여러 단위들(청진광산금속대학, 라선대흥무역회사 종업원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각각 개최(중방)

2009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목)

- 주요 기업소와 발전소 등에서 대규모 발파와 증산 투쟁(중방)

■ 1.3(토)

- 김정일 위원장,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방문(중통)
 - 현철해, 김명국, 이명수 동행

■ 1.4(금)

- 경공업성은 2009년 생활필수품 가운데서도 ‘입는 문제’ 해결에 주력(조선신보)
- 김일성의 평성시 ‘삼화협동농장’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이태남(平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에 진행(1.5 중방)

■ 1.5(월)

- 김정일 위원장, 포병사령부 산하 제1489 군부대를 방문 포사격훈련 참관(중통)
 - 김정각, 현철해, 김명국 동행하고 이정부(포병사령군, 인민군 상장)가 영접
- 2012년 경제강국 건설 계획은 구호가 아닌 실적에 기초한 계획(조선신보)
-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기계제작 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3차원 형태측정기’ 발명과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의 ‘단백영양수용액’ 완성 등 최신 과학기술 성과 선전(중방)
- 김정일 ‘예성장발전소’ 현지도 기념보고회, 박초영 등 참가하에 진행(1.6 중방)

■ 1.6(화)

- 김정일 위원장, 강원도 원산 소재 ‘원산청년발전소’ 방문 및 노동계급 격려(중통)
 - 이철봉, 장성택, 이재일, 현철해, 이명수 등이 동행하고 박정남(강원도 당 비서) 등이 영접
- 한승준 화학공업상 부상은 화학공업부문에서 “2012년까지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의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강조(조선신보)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주요소식』.

■ 1.7(수)

- 평양시 여객운수연합기업소 전경수 지배인, “버스수리공장에서 중형버스 및 화물자동차들 조립 생산목표 추진”(조선신보)
-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에서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하에 공동사설 관철 농업근로자들 쫓기모임 진행(중방)
- 덕성탄광 종업원들 김병팔(직총 중앙위 위원장) 등 참가하에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새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 청년전위들 쫓기모임, 1.7 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앞에서 김중린(黨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하에 진행(1.8 중방)

■ 1.8(목)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강원도 사람들의 “자력갱생, 사생결단의 각오와 투쟁위훈” 격려(중방)
- 평양시 일꾼·당원·근로자들 1,300여 톤의 파철을 모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보냄(중방)

■ 1.9(금)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당 창건기념탑광장에서 김중린(黨비서), 김병팔(직총위원장/보고), 김진하(평양시黨委 비서) 등 참가하에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여맹원들의 쫓기모임도 김중린, 노성실(여맹 중앙위원장), 김진하(평양시 당비서) 등 참가하에 개선문광장에서 진행(중방)
-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부문공장·기업소 및 채취, 기계, 화학공업, 임업부문 공장기업소 등 각 부문 종업원들의 쫓기모임도 각각 진행(중방)

■ 1.10(토)

-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 진행(1.11 중방)

■ 1.11(일)

- 김정일 위원장, 이재경(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연구사), 고병준(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에게 70세 생일상 전달(중방)

■ 1.12(월)

- 일심단결·자력갱생 거둬 강조(노동신문)
 - ‘진격의 나팔소리 천만심장 울린다’ 題下, “미래를 창조하는 힘은 일심단결이며 자력갱생”이라고 주장(중통)
- 경공업·수산업·상업부문 단위들, 공동시설 지지 궤기모임 진행(중방)

■ 1.13(화)

- 전력공업성은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전력 증산에 주력한 방침(중방)
- 노동적위대 창건 50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중방)
 - 김영일(내각총리),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당 축하문 전달), 김격식(軍 총참모장), 김성규(黨 부장/보고)등 참가하여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통)
- ‘자력갱생의 우뢰소리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중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및 금성트랙터공장(중통)

■ 1.14(수)

- 김정일 위원장, 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금성뜨락또르 공장을 시찰(중통)
 - 박남기(당 중앙위 부장), 주규창, 리재일(제1부부장들) 등이 동행
- ‘전민무장으로 강대한 조선’ 題下 노농적위대 창설 50돌 관련 인민방위무력이 김정일의 영군체제와 혁명적 군풍이 확립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 강화되어 공화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 있다고 선전(중통)
- ‘자력갱생은 조선인민의 위력한 혁명방식’(중통)
- 새해 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건설건재·국토·과학·보건부문(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함남국토환경보호관리국·국가과학원·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 단위들에서 궤기모임 각각 진행사실 보도(중방)

■ 1.15(목)

- 김정일 위원장,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깎공장 등을 현지도(중통)
 - 박남기(당 중앙위 부장), 주규창(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1.16(금)

-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방문, 사회정치활동 소식 및 장철구평양상업대학과 평양기계대학 등 청년학생들의 농촌지원활동 전개 보도(중통)

■ 1.17(토)

-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의 신상일 원장, 수산부문의 식량 해결 기여책으로서 ‘재배어업’을 강조(노동신문)

■ 1.18(일)

- 평안의학대학 병원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병원과 평안남도 인민병원의 의료일꾼들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조선신보)

■ 1.19(월)

- 금성뜨락또르공장,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 위한 종업원 쫓기모임
 - 차병연(평남도당 비서)등 참가하에 진행(중방)
- 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평방)

■ 1.20(화)

- 수산성, 먹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양어 생산량 2배’ 목표를 제시(조선신보)
- 김정일 위원장, 미루벌물길공사에 참가한 평안남도 여단 등 중요대상 건설과 지원사업에 모범을 보인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평양검공장에서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평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진행(중방)

■ 1.21(수)

-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 강조(노동신문, 중방)
- 올해 평양시에 30여만 그루 植樹 및 11개의 공원신설 등 수도의 면모일신사업 관련 평양시 인민쉴의 2009년 도시경영계획 전언(조선신보)

■ 1.22(목)

- 식량난 ‘자력갱생 해결’ 강조(노동신문)
- 조선작가동맹 중앙쉴 시인들이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인디아공화국의 날’ 즈음 인도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北-인도친선 평양구두공장에서 駐北 인도 대사 등 성원들과 전영진(北-인도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하에 진행 (중통)
- 1.24(일)
 - 김정일 위원장, 援軍사업 및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범을 보인 강령군 상업관리소 종업원들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黃北道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새해 첫 보름동안 800여만 톤 거름 실어내기 성과,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00여만 톤 증가 보도(중방)
- 1.26(월)
 - 박천군, 40여리의 새 물길공사 완공(평방)
- 1.27(화)
 - 평천가방공장, 평양수지학용일용품공장, 평양학습장공장, 평양학용품공장 등에서 4월 1일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조선신보)
- 1.28(수)
 - 김일성영상 담은 모자이크벽화, 사리원방직기계공장 및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 건립(중통)
- 1.29(목)
 - ‘평양시 혁명열사유자녀실화기동대’ 소속의 평균나이 70세의 선동대가 기업소 등 현장에서 경제선동(조선신보)
 - 보통강 대대적 준설(조선신보)
- 1.31(토)
 - 대남 ‘적개심’을 활용한 경제선동(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예성장청년1호발전소 현지도(중통)
- 2.1(일)
 - 지난 10여 년간 36만여 개 청년돌격대 조직(40여만 명), 각지 공장·기업소들에 10만

여 개의 4.15기술혁신돌격대가 조직돼서 85만 4,000여 건의 기술혁신안 창안 도입 등 청년돌격대 사업성과 선진(평양)

■ 2.2(월)

- 신년 공동시설 파업 관철에로 추동하는 선전화들 창작(중통)

■ 2.3(화)

- 김정일 위원장, 함주군(咸南) '동봉협동농장' 현지도(중방, 중앙TV)
- 도시경영성 현명걸(50세) 국장, 지난해 시작된 평양시내 가로등 현대화사업 계속추진, 올해 모든 가로등 교체(가로등자동조종체계 구성, 전등교체 등) 전언(조선신보)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57차 전원회의 개최(평방)
- 김정일 생일 공급품에 땅콩사탕 추가(조선신보)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제62차 전원회의, 김병팔(위원장 보고) 및 직총 중앙위원, 직맹 일꾼들 참가하에 평양에서 진행(2.4 중방)

■ 2.4(수)

-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반제자주적입장을 견지해야한다'(노동신문)
-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2.5 중방)
 - 최룡해(황북당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

■ 2.5(목)

- 김정일 위원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도(중통)
-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30돌 즈음 이란 사진 및 수공예품 전시회 개최(중방)
-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2010.5.1~10.31) 참가준비 진행(조선신보)

■ 2.6(금)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9차 전원회의 평양 개최(2.7 중방)

■ 2.7(토)

- 김정일 위원장,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도(중통)

■ 2.8(일)

- 김정일 위원장, 낙원기계연합기업소(평북 신의주에 위치) 현지지도(중통)
- 100만 명 치료 목표 구강재료 국산화(조선신보)

■ 2.10(화)

- 2.16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당창건 기념탑 광장에서 진행(중방, 평방)
 - 경축공연, 만경대농장에서 진행(중통)
- 신암협동농장(용천군) 및 은흥협동농장(태천군), 김정일이 보낸 농기계 전달모임 진행(2.11 중방)

■ 2.11(수)

-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의 생명선’(노동신문)
- 駐北 경제 및 무역참사단(단장 「엔리께 고메스 솔레르」 쿠바대사관 참사), 김정일에게 꽃바구니 및 축하편지 전달(중통)
- 농사철 앞두고 ‘물잡이 투쟁’ 전개(평방)
- 김정일 위원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농기계 전달 모임 현지진행(2.13 중방)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2.11~13 함경남도 내 농장·기업소들에서 개최(2.15 평방)

■ 2.12(목)

- 김정일 위원장, ‘원산농업대학(1948.9.1, 창립)’과 ‘원산시내 공장들(원산유리병공장, 원산구두공장, 원산화학공장)’ 현지지도(중통)
- 전국 각지 15만여 명의 청년학생들, 방학기간 사회정치활동(100여만 명의 근로자들 대상 선전활동, 100여 톤 파철과 수 만점의 소농기구 등 지원물품 전달, 8,900여 톤 거름내기 및 100여 톤 리탄캐기 등) 성과 선전(중방)
- 김일정 위원장, 원산시 유리병공장, 구두공장, 화학공장 등을 현지지도(2.13 중통)

■ 2.13(금)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쫓기모임(중방)
- 함경남도 군중대회, 함흥광장에서 진행(중방)
- 김정일 위원장, 원산농업대학 현지지도(중통)

- 리철봉(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철(국방위원회 참사)

■ 2.14(토)

- ‘과학기술은 중산의 열쇠’(노동신문)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태향 탄광에서 2.14 탄광 붕괴로 광부 29명이 갇혔으나 7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출(2.27 노동신문)

■ 2.18(수)

- 전국 각지의 학생청년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정치활동 힘있게 전개(중통)
- 원산시, 5개의 샘플공급소 신설(중통)

■ 2.21(토)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도 현지도(중통)
 - 홍석형(조선노동당 함격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규창, 리재일(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등이 수행

■ 2.22(일)

- 김정일 위원장, 7월7일 연합기업소(咸北, 화학비료·화학원료 생산) 현지도(중방)
-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평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도 현지도 및 혁명과업 수행과 사상 교양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2.23(월)

- 김정일 위원장,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도(중통)

■ 2.24(화)

- 대북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대표, 외교관계설정 35돌 즈음 연회 마련(중통)
- 콩 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2.24~25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2.28 중통)

■ 2.25(수)

- 김정일 위원장, 함경북도 회령시의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대

- 성담배공장, 중앙은행 회령지점, 김기송회령 제1중학교 현지지도(중통)
 -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노동신문)
 - 2008년 사회주의 경쟁 순회우승기, 과일군 고산과수농장에 수여(중방)
- 2.26(목)
 -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 題下 올해 부족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물질기술적, 노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중통)
 - 전국 각지 시·군들, 기름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수유나무林 조성사업을 힘있게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중방)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생산공정들을 종합적으로 자동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 통합조종체계 도입(중방)
 - 김일성 평성합성가죽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현지진행(2.27 중방)
- 2.28(토)
 - 황해북도 협동농장들, 식량문제 자체해결 각오로 봄보리 파종 집중(중방)
- 3.2(월)
 - 올해 농사 준비 완료(노동신문)
 - 식수절에 대대적인 나무심기(중앙TV, 노동신문)
- 3.3(화)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결정서 조인(중통)
- 3.4(수)
 - 김정일 위원장,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 건설사업 현지지도(중앙TV, 중방, 중통)
 - 기계공업성의 2월 계획 111.1% 결속 및 임업성의 산지 통나무 생산 131.2%초과 등 건설건재·철도운수부문 및 흑색광업관리국 등 2월 생산 초과달성(평방)
- 3.5(목)
 - 김정일 위원장, 618건설돌격대 지원사업 모범일꾼 등에 감사 전달(중방)
 - ‘농민들의 숙망을 실현한 법령’ 題下 ‘토지개혁법령’ 발표 63돌에 즈음하여 김일성의 위대성 선전(중통)

- 3.8(일)
 - 김정일 위원장,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범을 보인 금천군과 토산군의 일꾼·근로자 등에게 감사(중방)
 -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선거진행(중통)
- 3.11(수)
 - 김정일 위원장,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청남장공장 지배인 이성국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각지 사찰들, 3.11 「열반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중통)
 - 경공업과학분원 식료연구소, 콩우유(두유) 가공기술 개발(중통)
- 3.12(목)
 - 김정일 위원장,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김두남 영전에 화환전달(중통)
- 3.14(토)
 - ‘신념은 행복을 안아온다’ 題下 “2년 전 만포시 공장기업소들 현지지도 때 제시한 과업들을 모두 집행했을 뿐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세워 집행한 결과 김정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선전(중통)
 - 김영일(내각총리), 朝-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돌 관련 3.14 러시아연방 정부수상 ‘뿌진(푸틴)’에게 축전(3.17 중통)
- 3.15(일)
 - 최근 황남도의 120여 톤 파철을 수집,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 전달 등 평양시·황북도 등 전국 각지의 파철수집 성과 보도(중방)
- 3.16(월)
 - 朝-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돌 관련 사진전시회,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중통)
- 3.17(화)
 - 김정일 노작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발표(1997.3.17) 12돌 즈음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모든 부문·단위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일 것” 강조(노동신문)

- 주북 러시아 대사,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 관련 연회 마련(3.18 중통)

■ 3.18(수)

- 김정일 위원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지도
 - 김기남, 박남기 동행(중통)
- 황남도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과종면적이 1,500여 정보 증가한 봄 밀·보리 과종 완료 및 평양제사공장의 1/4분기 계획 151.2% 초과달성 보도(중방)

■ 3.19(목)

- 내각,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285개 공장·기업소 등에 수여하기로 결정(중통)

■ 3.22(일)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3.23 중방)

■ 3.23(월)

- 김정일 위원장, 의학과학원 천연물약품연구소 일꾼들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題下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향시켜야 할 때라며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해 더욱 힘차게 비약해 나가자고 호소(노동신문)
-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청진시에서 홍석형(黨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하에 진행(3.24 중방)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 암모니아 생산공정 조기완공을 위한 건설자들의 쫓기모임, 태중수(내각부총리), 리무영(화학공업상) 등 참가하에 진행(3.24 중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건설에서 공노있는 기술자·건설자 및 일꾼들에 대한 표창식,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진행(3.24 중방)

■ 3.24(화)

- 파키스탄의 날 즈음 친선모임, 조선파키스탄친선 평양일용품공장에서 진행(중통)

■ 3.26(목)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자주권 수호의 중요한 담보’(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희천1·2호 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중통)
- ‘평양방직기계공장’ 등 전국 각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26호 모범기대칭호」 쟁취투쟁 전개 및 성과 자랑(중방)
- 단천마그네사공장, 김정일의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3.27 중방)
- 평양 제1백화점, 김정숙 방문 60돌 기념보고회 개최(3.27 중방)

■ 3.27(금)

- ‘오늘의 총 공격전에서 조선노동계급의 전투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 題下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경제 강국건설 투쟁 강조”(노동신문)
- 평안북도 염주군, 새 도로건설공사에 역량 강화(평방)

■ 3.28(토)

-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題下 “공격은 확고부동한 난관극복·미래개척·승리쟁취 방식” 이라며 김정일의 현지도 ‘선군영도 업적’ 찬양(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평안남도/주요 석탄생산지) 현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구성공장기계공장(평안북도) 현지도(중통)

■ 3.31(화)

- 금성학원 컴퓨터 수재반 용도의 새 교사와 기숙사 신축(중방)

■ 4.1(수)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인민소비품 생산성과 선전(중방)
- 신학년도를 맞아 모든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공급(4.2 조선신보)

■ 4.2(목)

- 육해운성의 인민경제계획 완수 및 득장지구 명학탄광 101% 초과수행 등 전국 각지

탄광·공장·기업소의 1/4분기 생산계획 초과달성 자랑(중방)

- 모내기와 김매기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사리원시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4.2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4.3 중방)
 - 이용철 청년동맹 1비서, 고인욱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등 참가

■ 4.3(금)

- 「평양대극장」 개건 준공식,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준공사), 최태복, 김기남(黨 비서), 강능수(문화상)등 참가하에 진행(중통)
- 옹진군(黃南) 분지만간석지 방조제 마감막이 공사 완공 및 오가산 자연보호구에 수목원 건설 소식도 보도(중방, 평방)
- ‘선군시대의 새로운 경제건설노선’ 題下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이라고 강조(중통)

■ 4.6(일)

- ‘광명성 2호’ 발사 성공 주장 및 각계 반향 소개(조선신보)
- 2008년 12월 3G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후 가입자 2만 명 돌파(조선신보)

■ 4.7(화)

- 평양시 주변 농촌들과 황북, 평북 등지에서 봄철 농사준비에 주력(중방)

■ 4.8(수)

- 김정일 위원장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김영춘(인민무력부장/보고), 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가하에 진행(중방)

■ 4.13(월)

- 함흥화학공업대학, 4.13 김정일이 보낸 실험실습 설비들과 운전기재들 전달모임 진행(4.15 중방)

■ 4.14(화)

- 김정일 위원장, 청진광산금속대학에 실험실습 설비들과 운전기재 전달(4.16 중방)

- 4.18(토)
 -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영원발전소 현지지도 및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대동강 6개발전소, 총출력 26만 9천 KW(노동신문)

- 4.20(월)
 - 平南 온천군의 새로 개간한 간석지에 사탕수수 재배 성공, 지난 해 천 수백 톤 수확 (중통)

- 4.21(화)
 - 양강도 대흥단군과 김형권군 등 백두대지에 감자심기 박차(중방)

- 4.22(수)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중통)
 - 광범기(부총리)의 보고 및 토론 진행
 - 4.22~28, 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4.28 중통)
 - 자강도 만포시에 ‘국토환경보호 모범시’ 칭호 수여 「정령 제11호」(4.22자)도 보도

- 4.23(목)
 - 성·중앙기관 직맹단체들의 공구 및 예비부속품 전시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TV)
 - 黃南 재령군 농업근로자들,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하에 전국 농근맹 조직에 모내기 독려 쫓기모임 삼지강협동농장에서 개최(4.24 중방)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2호」, 이재경(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연구사)에게 ‘노력영웅 칭호’ 및 ‘금메달과, 마치고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수여(4.25 중방)

- 4.24(금)
 - 지적제품창조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의 관심 속에 진행(중통)

- 4.27(월)
 - 김정일 위원장, 원산농업대학에 새로 건설된 토양식무공해온실 현지지도(중통)
 - 김기남(黨비서), 장성택· 박남기(黨부장) 동행

- ‘세계 자주화 위업은 전 인류적인 정의의 위업’ 題下 “진보적 나라들의 협력 강화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수립의 중요한 방도”라고 강조(노동신문)
- 北-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 조인(중통)
- 산림과학분원 경제림연구소, 수확량이 높은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중통)
-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제65차 총회(4.27~29)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의 식량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5.5 중통)

■ 4.28(화)

- 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식(중통)
 - 3대혁명전시관에서 최태복(黨비서), 오수용(내각부총리), 김용진(교육상), 변영립(과학원장), 최상건(과학기술총연맹 부위원장/폐막사) 등 참가하에 진행(중통)
- 문평제련소 석회질소비료 생산공정 착공식 진행(4.29 중방)

■ 4.29(수)

- 백송종합식료공장 착공식을 진행(중방)
- 北 외무성대변인 성명, 유엔 ‘안보리’의 국방공업 분야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사죄 및 결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핵시험 등 경고(중통)
- 서포담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장인수(평양시 黨비서) 등 참가하에 진행(4.30 중통)

■ 4.30(목)

- 강선의 노동계급은 1/4분기 공업총생산액을 103.7%, 강철생산을 102.9% 수행, 경공업분야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 등 “김정일의 현지도 업적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黃南 해주시, 재령군·안악군 등지에서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와 벼모 키우기 등 당면한 봄철 영농작업 성과 보도(중방)
- 평양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국수류, 떡류, 기름류 등 특색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현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중방)

■ 5.1(금)

- 김정일 위원장, 5.1절을 즈음하여 금속공업부문과 연관부문 기업소 노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을 관람(중통)

- 김영춘, 이영호,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김명국, 현철해, 이명수, 김원홍 등이 수행

-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군시대 근로자의 영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題下 ‘5.1절’ 관련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길에 강성대국 건설의 열쇠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강성대국건설 총공격분발 선동(평방)
- ‘혁명적 대고조역사의 주인공인 조선노동계급’ 題下 노동계급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노정 치하(중통)
- 김영남, 최태복, 김중린 등 黨·政 간부들,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방문하여 노동계급과 5.1절 기념(중통)

■ 5.2(토)

- ‘제1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11~1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 예정(중통)

■ 5.3(일)

- 고산과수농장, 김정일 현지도 기념 보고대회 진행(5.4 중방)

■ 5.4(월)

-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150일 전투를 벌여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역사에 특기 할 해로 되게 하자”고 촉구(노동신문)
- 5.4~5,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5.6 중통)

■ 5.5(화)

- 임업성 아래 20여 개 임산·갱목생산사업소들은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 평양시 막걸리·감주경연 진행(5.6 중방)

■ 5.6(수)

- 상원탄광,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따라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상반기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노동신문, 중방)

- 5.7(목)
 - 朝中 정부들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 제43차 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중통)
- 5.8(금)
 - 김정일 위원장,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윤혁철 등에게 감사 전달(중통)
 - 미루벌 물길공사장, 리상저수지 언제 완공(중통)
- 5.9(토)
 - 김정일 위원장, 희천시 내 공장·기업소(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청년전기연합기업소·희천정밀기계공장) 현지지도(중방)
 - 박도춘(자강도당 책임비서), 전병호(黨비서), 장성택, 박남기(黨부장) 등 동행
- 5.10(일)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올해 첫 모내기 실시(5.12 노동신문, 5.13 중방)
- 5.11(월)
 -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자’ 題下 “강성대국 대문은 식량문제 해결에 있다”며 식량문제의 자금자족을 강조하며 전체 인민의 농촌지원, 적기 봄철 모내기전투 참여 호소(노동신문, 중통)
 -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11~14), 5.11 오수용(내각부총리), 오룡철(무역성 부상, 축하연설) 등 참가하에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 (중통)
 - 철도성 운수설계연구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5.12 중통)
- 5.12(화)
 - 차나무 대대적 재배 성공 주장(민주조선)
- 5.13(수)
 - 농업과학원, 병해충구제방법 및 수경재배에 의한 감자원종생산방법과 이용이 간편한 농약 개발에 성과(중통)
 - 평안남북도 및 황해북도·함경남도 등, 콩 심기 본격 추진(중방)

■ 5.14(목)

- 황해남도 농촌들, 벼 모내기 시작(중방)
- 「반제민전」 평양지부 조일민 대표와 성원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중통)
-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를 창조하자’ 題下 올해 전투는 “강성대국건설의 분수령, 승패가 달려있다”며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 창조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전체 당원, 근로자들 분발” 촉구(노동신문)
-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폐막(5.15 중통, 5.16 조선신보)

■ 5.15(금)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등 전국 협동벌들에서 올해 모내기 시작(중방)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40동의 농촌주택 새집들이 진행(중방)
- ‘150일 전투승리로 불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 題下 각급 예술단과 선전대를 공장과 농촌의 경제현장으로 파견하여 ‘150일 전투’ 적극 독려(중통)
- 개성 송도피복공장, 하루계획 150% 수준에서 정상화(중통)
- 정향기술교류사가 흡을 원료로 한 흡음판을 개발, 대형 공연장에 설치 중(조선신보)
-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등 희천시 내 공장·기업소들,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5.16 중방)
 - 平北道에 종합식료공장 건설 착공식이 5.15 진행된 소식도 보도(5.16 평방)

■ 5.17(일)

- 국가비상방역위, A(H1N1)형 돌림감기 방역사업 전국적으로 진행 중(중방)

■ 5.18(월)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공로자들에게 표창 수여(평방)
 - 김일성 시계표창(40명), 김정일 표창상(47명), 김일성청년영예상(10명) 등 수여

■ 5.19(화)

- 국가비상방역위, 신종 A(H1N1)형 돌림감기 방역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 강조(중통)

■ 5.21(목)

- 김정일 위원장, 함경남도 검덕지구 광산들 현지지도(중통)

- 대흥청년영웅광산,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룡양광산 현지지도 및 광산마을 실찰
 - * 咸南道黨 비서 김영규 현지영접 및 김기남(黨비서), 박남기, 장성택(黨부장) 등 동행
- 김정일 위원장, 함주 평풍덕 염소목장에 현대적인 젓가공설비와 운전기재들 전달(중방)
 -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건설지원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종합적 녹지조성기술 개발하여 평양시 중심거리와 전국 각지에 전파(중통)
- 개천-태성호 물길의 지선인 '잠진-대보'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평방)

■ 5.22(금)

- 북한은 150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선전(중통)

■ 5.26(화)

- 개성공단 개발의지 불변(조선신보)

■ 5.27(수)

- 모내기 질높이기 총력(민주조선)

■ 5.28(목)

- 김정일 위원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平南 안주시) 현지지도(중방)
 - 김기남, 박남기, 장성택 등 수행, 김영덕(화학공업성 부상) 등 영접

■ 5.31(일)

-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 마감공사 진행(중방)

■ 6.2(수)

-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콩 가공설비, 나노 재료를 이용한 고강도 수지 개발, 방직 기계 등의 현대화 사업성과 선전(중통)

■ 6.3(수)

- 황해북도 '리상저수지' 언제공사 완공(중방)
- 평안북도內 200개 농장들, 모내기 종료(중방)

- 6.5(금)
 - 정주기관차대의 1,500만km 무사고 주행목표 달성(중방)
- 6.6(토)
 - 김정일 위원장, 단천시 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및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조선인민경비대 제315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중통)
 - 단천마그네사공장, 개건된 단천제련소, 단천광산기계공장 현지지도에 김기남(黨비서)과 박남기, 장성택(黨부장) 동행
 - 조선인민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참가 同군부대의 공연관람 후 감사전달, 공연관람에 리영호(총참모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현철해(대장), 한동근(상장) 등 군 지휘성원들과 김기남(黨비서)과 박남기·장성택(黨부장) 등 黨간부 대거동행
- 6.7(일)
 - 김정일 위원장, 김기남, 장성택, 박남기 등과 함께 咸南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도 현지지도(중통)
 - 金父子의 보산제철소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현지 진행(6.8 중방)
- 6.8(월)
 - 김정일 위원장, ‘고산과수농장(강원도 고산군)’ 현지지도(중통)
 - 김기남(黨비서), 장성택·박남기(黨부장), 현철해·리명수(軍대장)등 동행
- 6.9(화)
 - 平南 영원발전소 준공식(중통)
 - 최태복(黨비서, 축하문 전달), 광범기(내각부총리, 준공사) 진행
 - 식당들에 그릇세척기 보급(조선신보)
- 6.10(수)
 - 성·중앙기관들을 비롯한 전국 모든 단위 일꾼들, 봄철 농촌 지원(중통)
- 6.11(목)
 - ‘집중적인 선전선동공세로 모든 150일 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자’ 題下 “모

든 분야에서 선전선동사업, 자력갱생, 과학기술 공세를 벌여 15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고 강조(노동신문 社說)

- 철도운수, 경공업, 채취, 기계, 농업,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5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수행 선전 및 150일 전투의 성과적 수행 지속 독려(중통)

■ 6.13(토)

- 북한은 농촌 각지에서 기본면적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황해북도에서 밀보리 가을걷이를 시작하였다고 보도(6.13~16 중방)

■ 6.15(월)

- 함경북도 내 당원들, 파철 모으기 군중적으로 진행(중방)

■ 6.17(수)

- 平北 운전군, 청정1호발전소 개건 완공(중방)

■ 6.18(목)

-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에 홍차를 매대 등장(조선신보)

■ 6.19(금)

- 남북 당국 간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중방, 평방, 중앙TV)

■ 6.22(월)

- 국토환경보호성 환경보호연구소, 오염된 주사기 등 병원성폐기물소각처리장치 개발 도입 자랑(중통)

■ 6.23(화)

-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 김문욱,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서해안 일부지방들 가물 현상 및 동해안지방 일시적 냉한 현상 예견(조선신보)
- 벽성군에 버섯공장 건립(중방)
- 철갑상어 양식 성공하여 본격적인 양어사업 돌입(중통)

- 6.24(수)
 - 과학기술출판사, '컴퓨터 비루스(바이러스)와 정보보안', '대상 식별 및 인식이론', '고구려벽화보존' 등 도서출판(중통)
 - 국가과학원 고려생물약센터, 병충해 방지와 수확률에서 우월성이 확보된 '식물성종자 피복제' 개발(중통)

- 6.25(목)
 -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 6개월간 100여 개 단위 현지도 강행군 단행 선전(중방)
 - '인기있는 대동강맥주(일명: 시원하고 뜨거운 맥주, 77.5%)' 題下 최근 생산되는 흑맥주, 흰쌀맥주가 평양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소개 선전(중통)
 - 6.25 김정일의 경제담화 발표를 2개월 여 뒤에 보도(8.24 중방)

- 6.26(금)
 - 원산농업대학, 현대적인 최신식 토양식 무공해 온실 새로 건설(중통)

- 6.27(토)
 - 노동신문 正論, '강성대국 포전으로 가자' 題下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쌀'로 열어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경제강국을 만들자"며 각계층의 농촌지원 강조 및 농업 근로자들 독려(중통)

- 6.29(월)
 - [150일 전투의 나날에 3] '나라의 동맥에 굵은 피가 흐른다' 題下 "철도운수 부문의 개선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기관차 생산 정상화와 새 기술 도입의 필요성 강조(조선신보)
 - 100% 감자로 만든 새로운 '감자흰쌀' 개발 성공 및 감자산지인 "咸北 무산군에서 감자 흰쌀 공업화를 기술공정 제작이 한창"이라고 선전(중통)

- 6.30(화)
 - 咸南道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慈江道 장강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동해안과 북부산간 지대의 두벌농사 소식 소개(중통)

- 7.1(수)
 - 김정일 위원장, 함흥반도체재료공장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현지지도(중통)
 - 박남기·장성택(黨부장), 주규창·이제강(黨1부부장) 등 동행
 - 각 부문 및 단위들에서 장마철 생산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 적극추진(중통)
- 7.2(목)
 -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입장 표명(중방)
- 7.3(금)
 - 제12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됐던 ‘비관혈심뇌혈관예보진단기’는 “뇌경색, 심근경색 등 사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자랑(중통)
 - 평양기계대학에서 개발한 무기질방수제와 농업기술인재양성 기지 원산농업대학(김정일 2회 현지지도)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성과 소개(중통)
- 7.4(토)
 - [150일 전투의 나날에 4 야간작업 몸에 배인 여성 노동자들의 합심’ 題下의 기사에서 150일 전투 속에서 삼석옷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새벽출근과 야간작업을 소개(조선신보)
- 7.6(월)
 -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黃南道 송배전부 기사장 강영남 등, 전력공급계통의 현대화 공사를 2년여의 기간에 완공 선전(중방)
 - 黃南 은천군과 해주시·平北 등에서 풍력자원을 이용한 전기생산 추진 결과, 가정 조명 등 실생활에 적극 이용(중통)
 - 농촌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지도강화로 농민의 노동계급화·농업의 공업화가 급속히 실현되어 농촌의 면모가 날을 따라 변모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함흥반도체재료공장·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종업원, 7.6~7 김정일 현지말씀 철저히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7.8 중방)
- 7.7(화)
 - 강계시, 현대적인 유희장 건설 추진(중방)
 - 원산 돼지공장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중방)

■ 7.8(수)

- 김정일 위원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범을 보인” 평양 의학대학연구사 백용옥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청진제강소 일꾼·노동자들의 수직로 건설 완공 소식 보도(중방)

■ 7.9(목)

-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전극산화방지제 개발(중방)

■ 7.10(금)

- 1차 인구일제조사(2008.10.1 실시) 자료의 완전성과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2차 인구 일제조사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중통)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는 북한과 중국 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8돌을 기념해 평양 옥류관에서 연회 개최(7.11 중방)

■ 7.11(토)

-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과학자들에 의해 철새들의 주요이행도를 작성,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동물성병원체에 의한 전염병 피해 예방에 기여(중통)
- 과일군에서 수확된 올해 첫물 복숭아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 자랑(중방)

■ 7.13(일)

-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중통)
 - 김기남(黨비서), 박남기·장성택(黨부장), 현철해·이명수(軍대장)등과 동행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題下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150일 전투가 벌어지는 올해를 “변(變)이 나는 해,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해 각 부문 일꾼·근로자들의 사회주의 경제운동 투쟁 독려(노동신문)
- ‘변(變)이 나는 해’ 題下로도 올 상반기 북한이 로켓발사·제2차 지하핵시험·월드컵 본선진출 등을 “사변, 기적”으로 自評하며 김정일의 100여 개 단위방문 등을 환기시키며 “변이 나는 해, 비약이 일어나는 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민들 150일 전투 독려(노동신문 正論)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새로운 외장재 및 비닐섬유와 정밀여과재료, 의료재료와 전자재료, 접착제들 개발과 생산성과 자랑(중통)
- 「세계인구의 날」 즈음 올해 주제(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여성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

자)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 진행(7.14 중통)

- 인민대학습당에서 7.13 '경제위기와 여성들에 대한 투자 강화' 에 대한 토론회
- 출판보도기관들의 '세계인구의 날과 여성', '여성과 인구문제' 題下로 여성들의 사회적 존중과 재생산건강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기 위한 선전 강화
-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소식」 특간호 발간

■ 7.14(화)

- 조선우표사, 선군시대 창조물(주체사상탑,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평양대극장 등)을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발행(중방)
- 駐北 인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北-인도친선 갈천협동농장(平南道 남포시)에서 친선 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중방)

■ 7.15(수)

- 장마철 큰물피해대책 전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중통)
 - 전력, 채취, 철도, 농업, 국토환경, 도시경영부문 등에서 큰물피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

■ 7.16(목)

- 경질유리 전문봉사 상점(련봉상점, 평양 대동강구역) 6월 중순 처음개업(조선신보)
- 평양 대성산기슭에 대규모 민속공원(약 200정보, 대규모 노천박물관 면모 등)도 건설 추진(조선신보)
-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재연구소의 건축물 마감도장재료인 진주광택칠감 및 장철구 평양 상업대학에서 새로운 축국수 연구개발 성과 자랑(중통)

■ 7.18(토)

- 평양시 살림집 건설과 문화시설 및 사회급양기지 개건사업 계속 진행 등 변모되는 平壤 모습 소개(중통)
- 단천마그네사공장 등 일꾼-노동계급에 의해 강원도당학교와 흥덕구역 및 순안구역 택 암협동농장 등에 金父子 형상 모자이크벽화 각각 건립(중방)

■ 7.22(수)

- 교육성의 김영인 부상은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

題下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을 지적하며 교육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과학화, 정보화’를 강조(민주조선)

- 전천착암기공장 창립(1969.7.22) 40돌 기념보고회, 박도춘(자강도黨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하에 현지 진행(7.23 중방)

■ 7.23(목)

-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 본성과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노동신문)
- ‘높은 계급의식은 혁명성과 애국적 헌신성의 바탕’ 題下 “계급의식으로 무장해 150일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 올해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주장(노동신문)
- ‘150일 전투’에 ‘가두녀성’이라고 불리는 전업 주부들까지 노동현장에 동원(조선신보)

■ 7.24(금)

- ‘두벌농사(이모작)’ 전역으로 확대 중(민주조선)

■ 7.25(토)

- 평양 금성사거리, 「조선식 속성음식(fast food)센터」인 ‘삼태성청량음료점’ 6월 초 첫 개업(조선신보)
- 김정일 위원장, 강원도 회양군 광전협동농장 제1작업반 이보옥 등 선군시대 모범 선동원들에게 감사 전달(평방)

■ 7.27(월)

- 새로 건설된 「마전호텔」 준공식, 咸南 함흥시 마전유원지에서 진행(7.28 중통)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제2·3부 시사회 대동문영화회관에서 진행(7.28 중통)

■ 7.28(화)

- ‘선군의 길에 우리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 題下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150일 전투의 승리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 공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강조(중방)
- ‘제재로 인한 궤도변경 가능성은 전무,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한 조선의 2012년 구상’(조선신보)

-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 8.3~5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예정(중통)

■ 7.29(수)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15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리자’ 題下의 노동신문 社說를 통해 지난 100일간 인민경제 각 부문 총공격 전 성과 총화 및 남은 50일 전투 박차 선동(중통)
 - * ‘승리의 결승선에서 만나자’ 題下의 노동신문 正論을 통해서도 “① 위대한 사변이 일어나고 있다, ② 사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③ 승리의 결승선이 기다린다” 내용으로 정치, 경제, 체육 등 각 분야의 100일 전투 상세성과 및 남은 50일 전투 고무 추동(중통)
- 최근 김정일의 한 노동자(원산청년발전소) 아기에 ‘김광명’ 作名 칭송 및 서흥호소년 단야영소(黃北 봉산군)에서 학생청소년들의 야영생활 國費부담 선전(중통)
- 주 북· 리 대사관, 농촌지원활동(중통)
- 적십자활동소개모임 개최(7.30 중통)
- 단천항을 현대적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궤기모임(7.30 평방)

■ 7.30(목)

- 김정일 위원장, 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중방)
-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조선여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 題下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63돌 즈음 “강성대국건설 위한 여성들이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더욱 헌신하며 혁명적 기개를 과시할 것” 촉구(노동신문)
- ‘150일 전투’ 제시 이후 지난 100일간 강철생산 계획 101% 달성(평방)
- ‘공정한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방도’ 題下 발전도상 국가들의 南南협조 강화와 경제질서 수립으로 “불평등한 現국제경제질서 타파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행사”를 역설하며 서방국가의 무역, 경제질서 배척 주장(노동신문)

■ 7.31(금)

- 8.2 김父子 구장세멘트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8.1(토)

- 기초식품 공급 전산화, 자동공급기 보급 중(조선신보)

■ 8.2(일)

-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題下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내부 와해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촉구(중통)
- 신의주방직공장, 전자제품개발회사 등 경공업성과 전자공업성, 석탄공업성, 전력공업성 산하 각 공장-기업소의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및 전자공업성의 107.4% 초과달성 성과 선전(중방)

■ 8.3(월)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통)
 -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8.3~6, 평양) 관련 올해 전시회 출품 제품은 “8,453 점”이라고 소개(8.6 조선신보)
- 평양건설건재대학, 세척율 90%이상이며 환경오염이 없는 ‘큰돌세척제’ 개발(중통)
- 음상전자합영회사에서도 조선장단이 도입된 대중용 ‘소백수’ 전자피아노와 ‘장자산’ 전자품금 제작(중통)
- 김정일 위원장, 지난 1월 모든 협동농장에 자체적으로 자연호름식 물길을 건설할 것을 지시(조선신보)
- 막걸리가 민족성의 강조와 건강중시의 양측면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 (조선신보)
-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 개최(8.3~5) 성과(중국 등 20개국 참가, 5,000여 종 전시) 소개 및 “전시회는 국내 건축전문가들이 세계건축에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박길우(조선건축가동맹 중앙총 부위원장) 부연(8.6 조선신보)

■ 8.5(수)

- 대성수출품전시장에 발암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광천약돌그릇’ 제품들 새로 전시(중통)
- 「흑색금속법」 제정(민주조선)
 - 철과, 그 합금의 생산, 공급, 이용 및 파철 관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5개장 58개 구조 구성
 - 민주조선에서 네 차례(7.23, 7.29, 8.4, 8.5)에 걸쳐 보도되었지만 제정일자는 밝혀 지지 않음.
- 김정일 위원장이 강계목장 젓가공공장에 보내준 설비들과 운전기재 전달모임 진행(8.6 중방)

-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평양방직공장 종업원 꺾기모임(8.6 중방)
 - 8.5 최영립(평양시 黨책임비서),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등 참가하에 진행(중방)
- 8.6(목)
 -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題下 김정일의 강성대국을 향한 “강행군 영도력” 칭송 및 전민 고무추동(노동신문)
- 8.7(금)
 - ‘장엄한 대고조 진군은 참된 혁명가들이 자라나는 혁명대학이다’ 題下 “黨의 혁명전사들은 조국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강성대국 건설과 혁명적 단련의 자랑찬 성과를 위해 계속 전진” 촉구(노동신문)
 - 전자재료연구소, 적외선복사체에 의한 전동기합침절연물건조기술 개발(중통)
 -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평양시 건설자들의 꺾기모임(중앙TV)
 - 평양시에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2012년) 위한 수도건설자들 꺾기모임(8.8 중방)
 - 8.7 김일성광장에서 김영일, 최영립, 노두철, 오수용(내각 부총리/보고), 박남기, 양호(금속공업성 부상/토론) 및 8만 여명의 군중들 참가하에 진행
- 8.8(토)
 - 조선기계무역총회사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생산 중인 각종 절연물과 칠감제품들 소개(중통)
 - 1961년 7월에 완공된 ‘서흥호(黃北 서흥군과 봉산군)’는 700여 km²에 달하며 “서흥호지구관개체계 3,500리 물길을 따라 사리원, 봉산, 연탄 등 수만정보의 부침땅을 관개하고 있다”고 소개(중통)
 - 단천지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현황과 전략을 자세히 소개(조선신보)
- 8.10(월)
 - ‘모든 150일 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자’(노동신문)
 - 현정은 회장 평양도착 보도(중통)

■ 8.11(화)

- 김정일 위원장, 라선시농업경영위 복합미생물비료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등에 감사 (중방)
- ‘첨단을 돌파하라’ 題下 첨단 공작기계 CNC설비 자체생산은 “기계공업의 세계적 수준 돌파, 21세기 자력갱생의 영마루에 올랐다”고 自祝하며 정보산업시대의 첨단기술개발 중요성 역설(노동신문 正論)
- 집단체조 ‘아리랑’ 올해 첫 공연 개막(중방)

■ 8.12(수)

-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시설을 전면가동하는 2012년, 비료 100만 톤과 알곡 1천만 톤 생산 목표(조선신보)
- 장마철인 7.20 이후 20여 일간 장마 중단으로 인해서 북전역으로 가뭄 확산(중양TV)

■ 8.15(토)

- ‘당의 영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노동신문 社說)

■ 8.16(일)

- 김정일 위원장,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 및 오찬(중통)

■ 8.17(월)

- 김정일 위원장, 최태복, 김기남(黨비서) 등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 현지지도(중통)
- 平北 대계도간석지, 풍요한 대지로 전변되어가며 해마다 많은 알곡 수확 선전(중통)
-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현대의 대북사업 관련 ‘공동보도문’ 보도(중통)
- 국가품질감독체계 수립 60돌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18 중통)

■ 8.18(화)

- 김정일 위원장, 개건 확장된 구장양어장(평안북도)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 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중통)

- 8.19(수)
 - 김정일 위원장, 故 공진태(前 내각 부총리) 영전에 화환 진정(중통)
 - 금속공업성 일꾼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지지모임’, 김한일(금속공업성 부상), 유영학(국장) 등 참가하에 개최(평방)

- 8.20(목)
 - 김정일 위원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오두환 등에 70번째 생일상 전달(중방)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및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黨사업(선군혁명영도) 개시 49돌 경축 모임 진행(중통)
 - ‘우리는 그들 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正論) 題下 강성대국은 열혈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일떠서는 것이라며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선동(중통)
 - ‘2.8비날론,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의 결합’ 題下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경남도 위치)의 생산공정을 전면적으로 ‘개건, 현대화하는 작업이 3년째 추진’되고 있다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조선신보)
 - 중앙계량과학연구소, 새로운 계열의 전기절연물 연구개발 및 생산방법 과학화(중통)

- 8.21(금)
 - 칠골농장 농업근로자들 등, ‘韓美합동군사훈련’ 규탄 및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 개최(중방)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김정일 현지말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 쫓기모임 각각 진행(8.23 중방)

- 8.22(토)
 - 평양 창전네거리에 최초 태양빛전지가로등(2개의 소형 태양판과 LED등, 자동조절장치, 축전지로 구성되었으며 1회 충전으로 3일간 야간조명 보장) 시범설치(조선신보)

- 8.23(일)
 - ‘두 사회제도에 비긴 판이한 모습’ 題下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소개(중방)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박진길 교수는 식량난 해결책으로 해삼 2톤의 재배가 알곡 100톤 이상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노동신문)

■ 8.24(월)

- 6.25 김정일의 경제담화 발표를 2개월 여 뒤에 보도(중방)
- 구장양어장 건설자·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꺾기모임 진행(8.25 중통)
-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8.24~31),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31 중통)

■ 8.25(화)

- 김정일의 黨사업(1960.8.25, 선군혁명영도) 개시 49돌 관련 동향
 - '선군혁명영도로 정치군사력 강화에 쌓으신 업적'(중통)
 - '당의 선군혁명영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노동신문)
 - 평양시(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4.25 문화회관 등)와 각 도, 시, 군 청년학생들과 여맹원들(개신문광장)의 '경축무도회' 각각 진행(중방)
 - 국립교향악단의 경축음악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통)
 - 조선인민군협주단과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 평양교예단과 평양모란봉교예단 예술인들의 교예무대 등 진행(중통)
- 김정일 위원장, 개건 확장된 「5월11일 제련소」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노래이야기 '우리 님 영웅되셨네'도 관람 보도(중통)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원리탄광, 8.25 현재 인민경제계획을 108%로 초과 수행(8.26 평방)

■ 8.26(수)

- 김정일 위원장, 당·군·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 자력갱생 강조(중방)
- 김정일 위원장의 6.25 경제담화 가운데 사흘째 분을 소개(중방)

■ 8.27(목)

- '조선의 돈산' 題下 咸南 검덕지구의 룡양광산,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의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세계의 최대 광물매장량 선전 및 양질의 상품화 소개(중통)
- 黃北道에서 지난 30년간 근 220만 마리의 꿩, 노루 방사 및 지난해 8만 5,000여 마리의 꿩과 2,200여 마리의 노루 사양관리 자랑(중통)
- '리비아의 9월1일혁명' 40돌 즈음 駐北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北-리비아 친선 애국모란피복공장에서 진행(중통)
- 김정일 위원장,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 강조(중방)

■ 8.28(금)

- 김정일 위원장, 강원도 원산제염소 현지지도(중통)
- ‘청년절’ 즈음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 題下 장군님의 선군영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에서 청년전위들에 대한 黨의 믿음과 기대는 크다며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적 기개를 높이 떨쳐 나갈 것 호소(노동신문社說)
- 김영남과 김영일 등 중앙과 지방의 黨·정권기관·근로단체 책임일꾼들, ‘청년절’ 즈음 김일성종합대학·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방문을 통해 청년학생들 축하(중통)
- 주체사상탑 등 평양의 무도회장들과 평성, 원산 등 각 道 소재들에서 청년절 기념 무도회 진행(중방)
- ‘우리식의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 경제노선’ 題下 黨의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노선은 세계가 부러워할 21세기 강성대국으로 빛나게 하는 애국애민의 위대한 경제노선이라고 선전(노동신문)
-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이념이다’(노동신문)
- 최근 수년간 평양리모델이 사업 진행이 김정일 위원장의 2001.8.28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개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중방)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위해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 총발동’할 것을 제안(중방)
- 6.25 김정일 위원장의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기를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題下의 경제담화 닷새째분을 소개(중방)
- 김정일 위원장이 8.28 시찰한 강원도 원산제염소는 연간 1만 5천 톤 생산(8.29 노동신문)
- 咸南 함주군 농업근로자들, 8.28 동봉협동농장에서 강창욱(농근맹 위원장), 손명심(郡농근맹위원장/보고) 등 참가하에 ‘가을걷이 및 낱알 털기’ 쉼기모임 진행(8.29 중방)

■ 8.29(토)

- 정부경제무역대표단(단장: 구본태 무역성 부상), ‘제5차 중국길림 동북아시아투자박람회(中 장춘)’ 참가次, 평양 출발(중방)

■ 8.30(일)

- 평양시내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할 군인들, 평양 도착(평방)

■ 8.31(월)

- 駐北 베트남대사관성원들과의 친선모임, 北-베트남친선 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중통)

■ 9.1(화)

- ‘15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돌격 앞으로’(노동신문 社說) 題下 “150일 전투성과 및 舍民의 막관 총력집중” 독려(중방)
-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산하 석현광산 등 150일 전투성과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기업소들 8월 생산계획 초과완수 자랑(평·중방)
- ‘애국복합미생물센터(1995 설립, 평양 통일거리 위치)’ 과학자·기술자들의 유기질발효 촉진제 개발, 복합미생물비료 국산화 실현과 유기농도입 소개(조선신보)
- 김父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9.2 평방)
- 전국농기계전시회(9.1~3),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진행(9.3 중통)

■ 9.2(수)

- 駐北 경제 및 무역참사단, 공화국 창건 61돌 즈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전달과 평양326전선공장 참관(중통)
- 량강도가 건설 중인 해산종합식료공장이 건설 마무리단계(평방)
- 제10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9.2~8),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8 중통)

■ 9.3(목)

- 김정일 위원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김책대홍수산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경성혁명사적관 등 경성군·명천군(咸北)의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중통)
 - 홍석형(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등 노동당 책임간부들이 수행
-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무연탄 다량채굴공법’ 연구 완성(중통)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정보센터 과학자들, 온보설계·본배열·검사와 수정 등 모든 공정을 컴퓨터화 ‘피복설계지원체계’ 연구 개발(중통)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南 안주시)·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壤市), ‘150일 전투’ 계획 초과달성 선전(평방)
- 김정일 위원장, 해산시에 윤전기재들 전달(9.4 중방)
- 사리원시 청년전위들, 미곡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꺾기모임 진행(9.4 중방)

■ 9.4(금)

-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題下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저지 파탄 시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노동신문)
- 최근 진행된 전국품질관리성과전시회에서 ‘물소독제 은단(2.5g 1개로 2,000 l 물소독)’ 제품이 물소독과 병치료 목적으로 관심집중(중통)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 완성, CNC(연하기계)의 공작기계개발과 검덕 지구에서 마그네사이트공업 주체화실현 및 마전호텔과 갈마극장 건설 등 자랑(중통)
- 제6차 전국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 전시회가 최근 평양 인민대표학생당에서 진행(중앙TV)
- 자강도 종합식료가공공장 마무리 단계(평방)
- 주요 사회단체들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 ‘150일 전투’의 기세를 몰아 “올해의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중방)
- ‘150일 전투’가 ‘강성대국 대문으로 단숨에 날아오를 새로운 발판,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했다고 자평(노동신문)

■ 9.5(토)

- 8월 생산계획이 119%로 초과 수행(중방)

■ 9.6(일)

- 김정일 위원장, 원군사업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 일꾼 등에 감사(중방)
- 태양에너지개발광합작회사가 전력수효에 맞춰 태양전지제품 생산(중앙TV)
- 平南道의 종합식료공장건설 마감단계 및 黃北道 지방건설건설관리국, 허천강발전소의 9.6 현재 150일 전투계획 115% 완수, 성 중앙기관들의 천리마제강기업소 파철지원 등 전국 각지 공장·기업소들의 150일 전투성과 대대적 보도(9.14 중방)

■ 9.7(월)

- ‘혁명적 기세는 계속 견지돼야’(노동신문 社說)
- 김형직군(양강도) 고읍노동자구에 ‘남사강 2호 발전소’ 건설, 조업식 진행(9.8 중방)

■ 9.9(수)

-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題下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여성들의 산전산후휴가제 및 근로자들을 위한 정휴양제와 요양소 건설·개선 등 “근로대중을 위한 인민적 시책강화 등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중통)

■ 9.10(목)

- [메아리] ‘계속 전진’ 題下 150일 전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승리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2012년을 향해 조국과 총련이 함께 전진·투쟁, 또 전진하라고 주장(조선신보)
- 컴퓨터장기프로그램 ‘유경3.0’ 및 ‘뇌혈관지표측정기(CVD)’ 선전(중통)
-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 중앙경공업제품건본관에서 허태권(경공업성 부상/개막사) 등 참가하에 개막(중통)

■ 9.11(금)

- 김정일 위원장,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로은광산 부흥갱 소대장 오만수 등에 생일상 전달(중방)
- ‘만풍년’ 題下 ‘150일 전투’가 끝나는 대로 ‘100일 전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조선신보)
-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케피르(*러시아어, 젓산균과 알코올 발효균이 들어있는 케피르씨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음료)판매소, “치즈, 고기케피르즙구이를 비롯한 염소 젓가공품 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대동강식료공장, 개선된 ‘과일탄산단물가루’ 연구개발 및 생산의 공업화 실현(중통)
- 금영합작회사가 채러동포들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러시아제품 전문상점’,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새로 개업(조선신보)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9.12 중방)
- 성진제강연합소·김책대흥수산기업소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각각 진행(9.12 중방)

■ 9.12(토)

- 평양방직공장, 연간계획 완수자 230여 명 배출(중방)

■ 9.13(일)

- 강계은하피복공장, 김정일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9.14 중방)
- 咸北 무산군 흥남청년발전소 조업식 진행(9.14 중방)

■ 9.14(월)

- 제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9.21~2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 예고(중통)
- 옹진군(黃南)에 전자도선관 신설 완공 및 금야군(咸南) 금야다리 개건, 은룰군(黃南) 곰섬에 분교 설치(중방)
- ‘미루벌 물길공사’ 완공, 시험통수 성과적 진행(중방)
 - 현재 남포 시민들의 식수원천을 태성호에 의거하고 있으나 향후 대동강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수도망 전면 보수공사를 150일 전투 기간 완료목표로 진행 중(조선신보)
- 평양의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2012년) 진행 관련, 거울제품, 마감건자재 등의 원만한 보장을 위한 ‘평양금속건재공장’과 ‘대동강타일공장’ 개건 확장 등 생산공정 및 설비개선 본격화 소개(조선신보)
- 최근 진행된 전국품질관리성과전시회에서 출품된 기계제품도안 등 산업미술창작 성과 및 ‘상표’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동맹, 헤그동맹 가맹 등 대외적 교류진행 등 산업 미술 발전 자랑(중통)

■ 9.15(화)

- 김정일 위원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제7차 전국 조선옷 전시회, 청년중앙회관에서 조정웅(조선옷협회 부회장) 및 식료일용공업성 부상 등 참가하에 개막(중방)
- 농업부문 과학자들, 새로운 ‘이동식 다곡종탈곡기’ 개발(중통)
- 駐北 중국대사관 경제무역관계 성원들 및 중국 길림성, 요녕성 대외무역종합대표부 성원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서해갑문 참관(중통)
 - * 駐北 이란 대사관 성원들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평방)
-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자’(노동신문 社說)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내 2.8직동청년탄광 석탄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새구역 개발과 영대탄광 벨트4갱 조업식, 광범기(내각부총리), 김형식(석탄공업상) 등 참가하에 각각 진행(9.16 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열선반사유리 생산공정 완성 조업식, 오수용(내각 부총리),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양장균(건설건재공업성 부상 겸 공장 지배인/조업사) 등 참가하에 진행(9.16 중방)
- 김일성의 사리원오리공장 현지지도(1979.9.16) 30돌 기념보고회, 현지진행(9.16 중방)

■ 9.16(수)

- 김정일 위원장, 강원도 건설자들(송도원청년야외극장 개건공사 참여)과 김책시내 당원·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사리원 철도분국 과장(장철호)· 책임부원(권철주), '150일 전투' 화물수송계획(151.3%) 등을 넘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선전(중방)
-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자' 題下 김정일 위원장의 추수 총동원령 지시를 설명(노동신문 社說)
- 김정일 위원장, "보람찬 100여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해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개시할 것을 시사(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150일로 갑시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고 구호를 소개(조선신보)
- 평양과학기술대학의 1단계 건물 준공식(중통)

■ 9.17(목)

- 김정일 위원장, 慈江道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중통)
-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들이 일떠섰다' 題下 김영철(경공업성 처장) 출연, 김정일의 종합식료공장 건설 중요성 지적에 따른 平南, 黃北·南, 양강도 및 평양시 등 현대적인 식료가공공장 건설 박차 전언(중방)
- 최근 사리원시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黃海北道예술극장(연 건축면적 1만 5,000㎡, 900석)' 소개, 자랑(중통)
- 천리마문화회관에 '독일과학기술도서실(2004.6, 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 280여종의 과학기술도서 반입 등 자랑(중통)
- 국가과학원은 전역에 '대형 물소독수 제조설비'들을 2012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노동신문)

■ 9.18(금)

- 평양천연향료연구센터, 청송향계열제품 개발(중통)

■ 9.19(토)

- 개천철도국, 개천↔순천 철길구간 콘크리트침목공사 완료(중방)
- 덕천갱목생산사업소, 8월 말 현재 동발나무 생산계획 125% 수행 등 150일 전투 계획 완수(중방)

■ 9.21(월)

- 黨중앙委, “150일 전투목표 성과적 달성” 평가 및 “100일 전투 발기” 「보도문」 발표(중방)
-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9.21~2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통)
 - 北·中·獨·伊 등 14개 나라 120여개 무역회사들이 참가하여 1.672종의 6만 1,700여 점의 전시품이 출품돼 “北의 무역다각화 추세를 보여주는 성공적 행사였다”고 評價 (9.29 조선신보)
- 고려의과학원 침구연구소, “신진적 침구치료 및 침혈진단설비를 임상실험에 도입하여 치료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선전(중통)
- 옥류관, “철갑상어 수족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철갑상어 요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중통)
-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꺾기모임, 각각 진행(9.22 중방)
- 5월11일 제련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꺾기모임 개최(9.22 중방)

■ 9.22(화)

- 9.22~26 방북한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 방북(11.13 조선신보)

■ 9.23(수)

- ‘승리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대고조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題下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에서 더욱 분발,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위한 토 대마련 촉구(노동신문 社說, 중통)
- 김영일 내각 총리, 무역은행 창립 50돌 기념행사 참가 각국 대표단·대표들과 담화(중통)
 - 모잠비크 은행 대표단 등 각국 대표들, 만경대와 주체사상탑·개선문·3대혁명전시관 등 참관소식도 보도(평방)
- 식료일용공업성의 상에 정연과 전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임명(중방)
- 신의주화학품공장 창립(1949.9.23) 60돌 기념보고회, 김평해(平北道 黨 책임비서)·정연과(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하에 진행(9.24 중방)
- 제7차 대항소상 전국 민족씨름경기, 9.23~25 평양 능라도에서 진행(9.25 중통)

■ 9.24(목)

- 조선우표사, 北·中 친선의 해 즈음 기념우표(묶음전지 2종) 발행(중방)
-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圖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자료집 10」 출판(중방)

-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보람찬 성과’ 題下 150일 전투성과 및 ‘100일 전투’ 분발 독려(중방)
- ‘유훈관철의 진두지휘’ 題下 김정일의 현지지도 정치를 “2012년 구상 실현을 위한 강행군 노정으로, 김일성 유훈관철을 위한 불면불휴의 계승의 역사”라고 評價(조선신보)
- 김일성 노작(사회주의 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3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 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무역은행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평양에서 진행(중통)
 - 내각, 무역은행창립 50돌 관련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중통)
- 선군시대 현실을 반영한 ‘후오복(말복뒤에 후복이 있다)’, ‘변이 나는 해’, ‘150일 전투’, ‘구장의 양어처녀(천지개벽된 양어장에서 물고기 풍년을 마련해가는 처녀들의 기쁨)’ 등 새로운 ‘시대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중통)
- 단천제련소(咸南), 아연생산공정에 필요한 복합재료제품의 국산화 실현으로 ‘내산펌프와 수지관’ 새로 개발(중통)
- 벼 추수 시작(민주조선)

■ 9.25(금)

-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題下 김정일이 명명한 「희천속도」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며 全民 ‘100일 전투’ 분발 독려(노동신문)
 - ‘충천한 기세로 《100일 전투》 전개’(조선신보)
- 김정일 노작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발표(1987.9.25) 즈음 ‘반제투쟁의 백승의 천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 題下 “先軍·反帝자주 강화 및 사회주의 우월성” 선동(중통)
- 러시아 정부가 北에 기증하는 식량 기증식, 咸北 라진항에서 진행(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컴퓨터망을 이용해 원격대학을 창설하여 본격 운영(조선신보)

■ 9.26(토)

- ‘경제부흥의 지름길 제시’ 題下 “김정일은 현지지도 강행군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한 부흥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렸다는 판단의 1차적 기준은 인민들의 생활향상의 실감”이라고 주장(조선신보)
- 국가과학원장에 장철을 임명 확인(노동신문)

- 9.27(일)
 -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공사의 하나인 ‘물감생산공정’ 건설 완공(중방)
- 9.28(월)
 - 최근 ‘미래기술회사’가 개발한 주요제품(지문인식기, 지능감시프로그램 등) 소개와 “첨단 기술제품개발에서 앞장선 유능한 연구집단”이라 칭찬(중방)
 - 원산군민발전소 1-2호 발전소 발전기실 기초굴착공사 완료(중방)
 - 올해 전국 10여 개 공장·기업소의 26호 모범기대영예상, 400여 개 단위의 26호 모범기대공장·기업소(2중 포함) 칭호쟁취, 240여 개 단위의 26호 모범기대직장(2중 포함), 4,970여 개 작업반이 26호 모범기대 또는 2중, 3중 26호 모범기대작업반 영예 쟁취(중방)
 - 베트남 정부의 對北기증 쌀, 9.28 남포항 도착 보도(9.29 중통)
 - 김정일 노작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발표 10돌 기념 청년사업 부문 연구토론회 9.28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9.29 중방)
 - 김중린(黨비서)·이용철(청년동맹 중앙쫘 1비서) 등 참가
- 9.29(화)
 -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꺽기모임(중방)
 - 조선인민경비대 박춘웅 소속부대, 발전소건설 현장지휘부, 철도성 등 희천2호발전소 언제 및 물길굴공사 참가 단위들에서 각각 진행
 - 김정일, 평양시내 경공업부문 공장들(대동강 식료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현지지도(중방)
 - 미루벌 물길(황해북도 곡산군~신계군) 준공식 진행(중통)
 - 北-몽골친선 정방협동에서 몽골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중통)
 -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군인들의 꺽기모임 진행(9.30 중방)
 - 평북 제련소 유산직장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9.30 중방)
- 9.30(수)
 -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젠’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하며 거부(중통)
 - 정보기술과 지질탐사 등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앞장선 두뇌집단으로 미래기술회사를 소개(중통)
 -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콧텔레콤 회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중통)

- 김영남,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 총사장 일행과 담화(중통)
- 김정일, 평양메기공장 · 12월7일 공장 · 김일성종합대학 수영장 등 평양시 내 여러부문 사업 현지지도(중통)
- ‘대국적 배짱이 준비한 총공세’ 題下 北이 지향하는 ‘強國’은 “자주성이 간한 사회주의 강국”이라며 《광명성-2호》 발사와 김정일의 현지지도 강행은 “畚民을 자주정신의 강자로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조선신보)
- 北 · 이집트 친선 및 경제협조 발전에 기여한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 총사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의식,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통)
-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협조사업 재개 관련 행사, 駐北 유엔개발계획대표부에서 진행(중통)
- ‘모두다 100일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라’(正論) 100일 전투기간 “자력갱생 기적 창조” 호소(중방)

■ 10.1(목)

-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메기공장, 12월7일 공장 등을 현지지도(중통)
- 박길연 외무성 부상, 핵무기 관리 · 사용 · 확산 방지에서 책임있는 행동(중통)
- 종료된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과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조선신보)
- ‘남구주택건설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10.2 중방)
- 10.1 쿠바 아바나에서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 체결(10.3 중통)
 - 리용남(무역상), 피델 피게로아 데 라 빠스(쿠바 건설장관) 참석

■ 10.2(금)

- 김정일 노작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발표 14돌 즈음 “金父子의 주체 · 선군사상 구현으로 軍 · 經濟 · 文化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노동신문)

■ 10.3(토)

- 김정일 위원장,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양시 교외에 위치한 타조목장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군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현철해(리명수 대장), 최태복(당비서), 김기남(당비서), 장성택(부장) 등 촬영
- 평양방직공장(110.4%), 평양기계공장(115%)등 경공업성의 9월 계획 110% 결속(평방)
- 전국의 협동벌에서 벼 가을 시작 보도(중방)

■ 10.5(월)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활발히 진행 및 청진시에 유리병공장건설 진행 및 고원군에서 덕지강 14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진입(중방, 평방)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9월 석탄생산계획 101% 최고생산 등 각 석탄공업부문 9월 석탄공업성적 석탄생산 계획 100.4%로 지난해 비해 212% 생산혁신(중방)
- 기계공업성 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의 9월 계획 112.9% 초과생산 성과 및 대흥청년 영웅광산의 마그네샤크링카 생산계획 일일 150% 초과생산 등 咸南道內 모든 부문-단위들 100일 전투 수행성과 보도(평방)

■ 10.6(화)

- 평양방직기계공장 · 평양메기공장 · 대동강식료공장 등, 10.6~7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중업원 쫓기모임 각각 개최(10.8 중방)

■ 10.7(수)

- 조총련 계열 조선대학교 지영일 사회과학연구소장, '150일 전투(4.20~9.16)'의 기록적인 생산실적과 일부 기업소는 1980년대 말 최고실적 돌파를 목표(조선신보)
- 10·11월 '연료, 동력 절약 기간'을 맞아 연료, 동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민주조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0.7 타조목장 현대에 기여한 문경덕 노동당 부부장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10.8 중방)

■ 10.8(목)

- 타조목장 현대화에 이바지한 일꾼들에 대한 표창식 진행(10.9 중방)

■ 10.9(금)

- 김정일 위원장, 黃海北道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및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예술극장 현지지도(중통)

■ 10.10(토)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10.9 김일성의 현지지도(1959.10.9)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10.12(월)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題下 “수도의 주택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 2012년까지 목표로 정한 살림집 건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조선신보)
- 애국복합미생물센터, 新개발 ‘유기질발효촉진제’ 이용 농작물생산 성과(중통)

■ 10.13(화)

- 김정일 위원장, 원군사업에 모범을 보인 금강군 양정사업소 일꾼들 등에 감사(중방)
- 남흥가스화대상공사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중방)
-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題下 조선노동당원은 “영도자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지”라고 추켜세우며 그간의 “공적” 치하 및 강성대국 건설 실현에 선도적 역할 주문(노동신문)
- ‘또마슈 슈체빠놉스키’ 駐北 폴란드 대사와 성원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진행(중통)
- 양강도 백암청년역↔백암탄광 간 철길전용선 확장공사 추진(중방)
- 수도건설부 등을 비롯한 시공단위 일꾼들의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 역량 집중(중방)

■ 10.14(수)

- ‘화해, 협력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論說) 題下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장(노동신문)

■ 10.15(목)

- ‘선군정치는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한 위력한 정치방식’ 題下 “지난 15년간의 투쟁성과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는 현실은 선군정치의 자랑”이라며 김정일 업적 칭송(중통)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 주력(중방)
- 사리원시 미곡협농·황해북도예술단,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쫓기모임 진행(10.16 중방)

■ 10.16(금)

- ‘주체공업이 걸어온 60여 년 역사를 회고하여’ 題下 주체공업의 60여 년 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면서 비약해온 자생, 자강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며 국방공업 발전과 인민들의 사상정신력 적시성 강조(노동신문)
- 각지 경공업부문 노동계급의 지난 9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방적사, 일반천 생산 1.2배, 치약, 칫솔 등 1차 소비품 생산 110% 이상 장성성과 보도(중방)
- 김일성의 《트·ㄷ》(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1926.10.17) 관련 《트·ㄷ》에서 시원이 열린 조선노동당의 선군혁명위업’ 題下로 《트·ㄷ》결성 意味 강조(중통)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에서 개발한 발효촉진제 《청초》의 집짐승 증체를 1.2% 증가, 질병예방 등 축산부문 도입성과 선전(중통)
-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10.16~18 중국 베이징에서 우표전시회 개최(10.21 중통)
- 10.16 개막한 제20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 선보였음(10.21 조선신보)
- 어대진청년제업소의 일꾼·근로자들의 지난 10.16 현재 연간 소금생산계획 115% 초과 생산(10.25 중방)

■ 10.17(토)

- ‘현실은 북남협력을 위한 실천행동을 요구한다’(노동신문)

■ 10.18(일)

- 강원도 원산항 2호 부두 확장공사 완료(중방)
-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기 개발하고 개성시·운전군·향산군 등 현장에 성과적으로 도입(중방)
-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단 10.18 평양 도착 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10.20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 노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피력(10.21 중통)

■ 10.19(월)

- 국토관리총동원 기간(10~11월)을 맞아 도로 보수와 강하천 정비 등에 주력(평방)
- 원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자매관계 설정 및 친선과 협조 강화에 관한 협정을 원산에서 조인(중통)
 - 홍선옥(조선·러시아 친선협회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일섭(원산시 인민위

원회 위원장), 이고르 푸시카료프(시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가 참석

■ 10.20(화)

- 원산시, 불장식(네온등빛 등 50여개 대상) 2단계 공사 완료(중방)
- 평양도시계획설계사업소, 平壤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설계 완료(조선신보)

■ 10.21(수)

-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 완공된 만수대거리 주택들 시찰(중통)
- 駐北 팔레스타인 대사와 성원들, 평양시 사동우경 오염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진행(중통)

■ 10.22(목)

- ‘북남선언 이행을 추동해야 한다’(論說) 題下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노동신문)
- 제2차 전국선군시대 공로자대회 폐막(중통)
- 국제합작 영화 제작 적극추진(조선신보)

■ 10.23(금)

-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9월26일 종자돼지공장과 10월22일 돼지공장 현지지도(중통)
- 국가과학원 방직연구소, 인공혈관·무릎관절인공집자인대·관절압착봉대 등 새 형의 의료용 섬유제품들 개발 이용(중통)
- ‘조선의 언론들이 북남관계 개선을 촉구’ 題下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대담논조를 종합해 보도(조선신보)
- 박의춘 외무상, ‘라덴 모하마드’ 新任 인도네시아 외무상에게 축전(10.26 중통)

■ 10.24(토)

-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題下 유엔에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요구(노동신문)

■ 10.25(일)

- 김정일 위원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희천제사공장·희천공업대학 현지지도(중방)

- 김정일 위원장, 무역집배 ‘해운호’선원들 · 광복백화점 1층 작업반원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
- 김정일 위원장, 묘향산 유원지 시찰(중통)
- 신의주↔낙원도로 개건 확장공사 완공(중방)
- 신세대들에게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 촉구(노동신문)
- ‘자본주의 향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민주조선)
- 공화국선수권대회 마라톤경기,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10.26 중통)

■ 10.26(월)

- 조선종교인협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伊藤博文 저격 100돌 즈음 “6.15, 10.4 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온 겨레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장하는 呼訴文 발표(중통)
- ‘광폭정치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정치’ 題下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애국의 정치는 광폭정치”라며 “정당성과 생활력”(노동신문 說破)
- 「총련」 일꾼 대표단(고덕우 총련상임위 부의장), 10.26 만수대거리 새로 건설된 주택들 · 삼일포특산물공장 · 대동강타일공장 등 참관(중통)
- 中 조선전선 참전 59돌과 우의탑 건립 50돌 즈음 駐北 中 대사관과 만향집단공사에서 우의탑에 ‘태양전지가로동’을 기증하는 행사 진행(중통)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위대한 역사 제21부(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여)’ 새로 창작(중통)
- 평양출판사, 선군전기도서 《선군의 아버지 김일성장군》 출판(중통)
- 김영남,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중통)
- 김영일 내각 총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독립 30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중통)
- 시리아 정부경제 대표단(아미르 루트피 경제상업상), 평양 도착(중통)
- 유럽동맹 트로이카 대표단(프레드릭 몰린 스웨덴 외무성 정치부총국장), ‘조선유럽동맹 정치대화’ 참가次, 평양 도착(중통)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강영섭 위원장), 홍콩 방문 후 귀국(평방)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관한 노력’ 題下 1984년 대남 수해지원 언급(민주조선)
-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 참가 ‘중대군인들 공연’, 만수대예술극장에서 黨과 軍隊 ·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 · 성 · 중앙기관 일꾼 등 관람하에 진행(10.27 중통)

■ 10.27(화)

- 내각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중통)
- 평양(중앙병원)↔지방(道 인민병원) 간 病환자들 원격진단·치료 시작(중방)
- 김정일 위원장, 軍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제567·762군부대 등 관하 중대 군인들 공연 관람(중통)
- 대홍청년1호발전소 준공식, 현지에서 리태남(平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석하에 진행(10.28 중방)
- 北-수리아경제공동위 제6차 회의, 10.27~28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28 중통)
- 9.26 종자돼지공장과 10.22 돼지공장 종업원들, 10.27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각각 진행(10.28 중방)

■ 10.28(수)

- ‘일꾼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고조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題下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100일전투에서 새 기록을 창조하자”며 각 계층 총력투쟁 선동(노동신문 社說)
- 김영남, 訪北 수리아 정부경제대표단과 담화(중통)
- 수리아 경제상업상에 친선훈장 제1급 수여(중통)
 - 수리아 경제상업상, 김영남을 통해 김정일에게 선물 전달(중통)
- 駐北 독일대사관 성원들, 평양시 순안구역 순안농장 친선노동(중통)
- ‘일꾼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고조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노동신문, 중방)
- 수도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도 과업관철 쫓기모임, 4.25문화회관에서 개최(10.29 중방)
- 김정일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양경복(조선노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태형철(사회과학원장) 등 참가하에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9 중통)

■ 10.29(목)

- ‘알레리 쭈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와 성원들, 平南 친리마군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진행(중통)
- 함흥시, 네온사인 공사 성과적 완료(중방)
- 만경대렌트겐공장 기술자들이 심전계 제작, 임상실험 및 복보초음파 탐촉자 개발 등 각지 의료기구생산단위들에서 고성능 의료기구 개발 박차(중통)

- ‘북남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노동신문)
- ‘겨울철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민주조선)

■ 10.30(금)

- 김정일 위원장, 平北道內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발전소 등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위원장, 수풍발전소 현지지도(중통)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北-인도네시아친선 약수협동농장(平南 강서군)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중통)
- 공장과 기업소들의 컴퓨터화 경쟁(조선신보)
- 신형독감 대처하여 비행장, 무역항, 국경초소들에서 검역사업 강화(중통)
-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 준공식, 곡범기(내각 부총리), 정연과(식료일용공업상/준공사) 등 참가하에 黨 중앙委 「감사문」 전달 등 진행(10.31 중방)
- ‘덕지강 6호 청년발전소’ 준공식, 태종수(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에 진행(10.31 중방)

■ 10.31(토)

-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비상설 준비위원회 조직(조선신보)
 - 구본태(무역성 부상)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구총대표로 선출

■ 11.1(일)

- 김정일 위원장, 개건 현대화된 압록강계기종합공장·수풍베어링공장·10월10일 공장·압록강일용품공장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11.1) 15돌 즈음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등의 보도물을 통해 김정일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혁명강군, 자위적 억제력과 광명성 2호 발사 등 영도력” 칭송(중통 등)

■ 11.2(월)

- 김정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현지지도(중통)
- 희천시 내 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등 여러 단위들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11.3(화)

- ‘당원들은 100일 전투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노동신문 社說)
- 최근 평양소주공장에서 깻잎 술, 썩술, 황경피나무열매 술, 등 12종의 새 술 출품(조선신보)
- 채취공업성 일꾼들과 산하 광산 106%, 육해운성 114.3%, 경공업성 109%, 평화장동차기구공장 총생산액116.1%(총수입액: 113%, 국가납부: 110.7%) 완수 등 각지 경제전선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 자랑(중방)
- 駐北 쿠바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北-쿠바친선 ‘화성협동농장(평양시 용성구역)’ 친선노동 진행(중통)
- 평양소주공장이 최근 종업원들이 직접 착상, 개발한 12종의 새 술을 선보임(조선신보)

■ 11.4(수)

- 철산군(平北)內 당원들과 일꾼들, 수십 정보의 ‘소금밭’ 새로 건설(중방)
- 장자강발전소 창립(1949.10.10) 60돌 기념보고회, 조효형(자강도黨委 비서)등 참가하여 진행(11.5 중방)

■ 11.5(목)

- 平北 운산군·신의주시·黃南 해주시 등, 자연흐름식 수도화공사 완공으로 郡 안의 주민들에게 수질 좋은 샘물 공급 선전(중통)
- 수도건설부·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등,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적극 추진 중(중방)
- 철도운수부문 일꾼들, 10월 수송계획 117.7%로 초과 달성(중방)

■ 11.6(금)

- 김정일 위원장, 咸南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공정 건설장 현지지도(중통)
-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 題下 김정일의 100일 전투 기간 대동강식료공장, 수풍발전소 등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장정” 칭송(중통)
- 사리원시 미곡리에 40동의 문화주택건설 및 평양시 교외에 위치한 타조목장, 원산농업종합대학, 평양방직공장 구내 등 植樹 등을 통한 “수목원, 휴양소를 연상시키는 이상적인 농촌건설” 자랑(평방)

■ 11.7(토)

- 수풍발전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 진행(11.10 중방)
- 김정일 위원장, 咸南 정평군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및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도 현지지도 (중통)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새로운 폐열회수이용기술 개발(중통)

■ 11.9(일)

- 平北道 닭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쉼기모임 진행(11.10 중방)

■ 11.10(화)

- 黨과 국가 간부들,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인민문화공진) 관람(중통)
- 김일성 노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1937.11.10) 72돌 즈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업적 칭송(중통)
- ‘화해와 협력은 자추통일, 평화번영의 길’ 題下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점을 강조(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11.10 150일 전투를 돌아보던 자리에서 “조선은 세계어로! 세계는 조선어를 쳐다보라!”라고 말했다고 보도(11.14 노동신문)

■ 11.11(수)

- ‘현지지도 단위들이 100일 전투의 앞장에서 대고조의 북소리 높이 울리자’ 題下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받은 모든 단위들이 100일 전투의 “전국적 모범, 선도적 역할” 주문 (노동신문 社說)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쉼기모임, 평북 압록강계기종합공장 · 수풍베어링공장 · 10월 10일공장 · 압록강일용품공장에서 진행(중방)
-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성원들,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진행(중통)
- 평양기초식품공장, 새로운 기능성기초식품 철강화간장(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우수 평가) 연구 개발(중통)
- 군인, 각지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양강도 내 혁명전적지 · 혁명사적지 ‘겨울철 답사’ 시작(중통)
- 駐北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대표, 自國 9월1일혁명 40돌 즈음 11.11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이룡남(무역상) 등 초청하에 연회 개최(11.12 중통)

- 삼지연 고려약공장 조업식, 김히택(양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에 진행(11.13 중방)

■ 11.13(금)

- 9.22~26 방북한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과 조선상업회의 사이에 교류협력 계획들이 합의돼 실행단계(조선신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 3대혁명붉은기(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 공장 등) 등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11.20 중방)
 - 3중·2중 영예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400호도 발표

■ 11.14(토)

- ‘100일 전투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자’ 題下 주민들의 사상정신무장 강조(노동신문)
- ‘전력증산, 경수로도 자력갱생 한다’ 題下 “전력증산을 경제부흥의 중심 고리의 하나로 규정, 경수로발전소건설 국산화 적극추진” 소개(조선신보)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題下 北 ‘유엔식량농업기구’ 가입일(1977.11.14) 즈음 “그간 同기구 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조선은 반드시 식량문제, 농업문제 해결 등 새 세계 건설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 강조(중통)
-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고 60% 이상 절전형의 새 무궤도전차 시제품 생산(중방)
- 개발도상국 “독자적인 금융체계 창설”에 관심 표명(노동신문)
- 평안북도, 김父子 현지도도 20돌 기념보고회 진행(11.15 중방)
 - 미루벌 물길 준공, 금진강 구창청년발전소, 덕진강 6호 청년발전소, 대동강식료공장, 물감-농약기구건설 및 만수대거리 새집들이 등 100일 전투성과 선전(중방)

■ 11.16(월)

- 희천발전소건설 관련 조국청사에 사변을 아로새기고 있는 창조자들의 영웅적 위훈을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발표(11.17 중통)

■ 11.17(화)

- ‘신심과 낙관에 넘쳐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題下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릴 것을 호소(노동신문 社說)
- 50일간 전국적인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로 장성 및 수많은 대상들이 준공되었다고 선전(중통)

- 러시아, 대북 식량지원 완료(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평양기초식품공장 된장직장 등 5개 단위들에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과 영남배수리공장 등 5개 단위들에 '26호 모범기대 영예상' 수여 「정령 제 417호」 발표(11.22 중방)
- 11.18(수)
- 「농근맹」 일꾼들과 농근맹원들,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등에 식수(중통)
 - 도로건설 및 보수·강하천정리·나무모 생산 등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 이룩(중통)
- 11.19(목)
- '100일 전투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노동신문 社說)
 - * 노동신문(11.16, 政論), '전선시간이 흐른다' 題下로도 100일 전투 제시 이후 지난 50일간 "희천속도 성과"自畫自讚과 김정일의 현지도 칭송 및 남은 50일간 분발 독려(중방)
 - '국토관리 사업은 만년대계의 숭고한 애국위업' 題下 김정일 노작 발표(11.19) 25돌 즈음 노작의 "정당성과 생활력, 김정일의 국토관리사업 영도력" 칭송 및 지난 기간 리원군(咸南)의 국토관리사업 투쟁성과 자랑(노동신문 論說)
 - ※ 김정일 노작: 「국토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 함경남도에 현대적인 '백운산종합식료공장' 건설 및 시운전 완료(중방)
 - '평양민속공원' 건설 진척 및 단천항 건설자들의 '4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대관1호 발전소' 건설(平北道 대관군) 진행 등 경제소식 보도(중방)
 -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첨단제조기술이 도입된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진단 시약 《HCV-PHA》 연구 완성(중통)
- 11.20(금)
-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 현지도(중통)
 - 김책체철연합기업소가 생산공장 현대화 한창(조선신보)
- 11.21(토)
- 김일성 노작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제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발표 즈음 체육사업에 쌓아올린 김일성 업적 칭송(중통)

- 11.22(일)
 - 김정일 위원장,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黃南道 배천군 금곡중학교 교장 안광모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강성대국의 승리를 안아오는 위대한 영도’ 題下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현지도 강행군 영도력” 칭송(평방)
- 11.24(화)
 - 김정일 위원장이 평안북도 운산공구공장을 현지도(중방)
- 11.25(수)
 - 김정일 위원장이 평안북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중방)
 - 김평해(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북한은 11월 20일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제36차 회의에서 “FAO가 무엇보다도 식량위기,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통, 중방)
- 11.28(토)
 - 국가과학원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원과 2009~2011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지난 25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조인(중통)
- 11.29(일)
 -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 운영하는 염소목장과 제 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현지도(중방)
 - 운산공구공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궐기모임 진행(11.30 평방)
- 11.30(월)
 - 김정일 위원장, 인민보안성에서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도(중통)
 - * 김정일 위원장, 새로 건설된 석정돼지공장과 석정장아찌공장도 현지도(중통)
 - 당과 국가간부들과 당·성·중앙기관 책임일꾼 등,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참관(중통)
 - 평안남도 ‘안주121호 종이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12.1 중방)
 - ‘조선에서 새 화폐 발행, 교환사업 진행’ 題下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교환사업이 11.30~12.6까지 7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12.4 조선신보)

■ 12.1(화)

- ‘10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자’ 題下 “한 달 남은 ‘10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여 다음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자”고 강조(노동신문 社說)
- 평양 창광음식점거리, 1년 남짓 기간 만에 개건되어 12.1 조업(12.2 중통)

■ 12.2(수)

- 전기연구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대형발전기들의 勵磁체계 현대화 성공(평방)
 - * 용접연구소 일꾼-과학자들의 폭발용접에 의한 기차바퀴 수리(기차바퀴를 때지 않고 수리 등) 과학연구 사업 진전 성과도 소개(중방)
- 평양시내 ‘여맹’원들,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 ‘원호물자’ 지원(중방)

■ 12.3(목)

- ‘인민군대식으로 총돌격전을 본때 있게 벌이자’ 題下 100일 전투 잔여기간 총력투쟁 독려(노동신문 社說)
 - * 전전자공업성 131.8%, 철도운수부문의 화물수송 계획 112%, 잠업비단지도국 산하 공장 등 101.3% 등 11월 계획 초과 달성 보도(중·평방)
- 희천발전소 건설 참가 희생자 강일(조선인민군 군관)에게 「노력영웅칭호」 수여식, 김우호(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가하에 진행(12.4 중통)

■ 12.4(금)

- 김정일 위원장,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등 건설지원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통)
- ‘화폐교환조치, 근로자 이익옹호와 생활안정 향상이 목적’ 題下로도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과의 인터뷰 기사도 게재(조선신보)
-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농장원 꺾기모임 진행(12.5 중방)

■ 12.5(토)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서 100일 전투 결속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노동신문 社說)

■ 12.6(일)

- 남흥가스화대상공사,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평방)

■ 12.7(월)

- ‘100일 전투에서 천리마 대진군 때와 같은 혁명적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노동신문社說)
 - * ‘과학기술발전은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 題下 “黨의 과학기술 중시노선 正當性, 持續性” 강조(노동신문)
- ‘자랑할만한 염소목장’ 題下 함흥시청년염소목장(咸南 래일구)의 젖가공시설 및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봉사망, 각종 제품생산 공정 등 자랑(중통)

■ 12.8(화)

-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 공연’,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시·군 및 희천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진행(중통)

■ 12.9(수)

- 김정일 위원장, CNC화가 실현된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및 강계목장 현지지도(중통)
- 을지종합작회사에서 만든 감자가루, 급양부문 전문가들과 가정주부들에게 好評(중통)

■ 12.10(목)

- ‘정방산종합식료공장(黃北 사리원시)’ 완공 및 ‘청류폭포 등산길(평양 모란봉)’ 개건(중방)
- 식료일용공업성 660여 개 단위의 연간계획 수행 및 하당~서포지구 투입 군인 건설자들의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성과 보도(평방)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닭공장,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12.11 중방)
- ‘원산제염소’ 건설 공로자들에게 「표창식」 수여(12.11 중방)

■ 12.11(금)

- 김정일 위원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강계편직공장·강계포도술공장 등 자강도 강계 시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平北道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금년 ‘콩수확’ 완료 보도(중방)
 -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500여 동 새집입주 및 「도평 2다리」(평양시 강동군) 건설(평방)

■ 12.12(토)

- 김정일 위원장, 개건 보수한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 및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현지시찰(중통)

■ 12.14(월)

- 김정일 위원장, 평양체육관 일꾼-종업원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양형섭, ‘조선국제상회’ 대표단(단장: 주해리 명예회장)과 담화(중통)
- 현대적 구강종합병원 개원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중방)

■ 12.15(화)

- 「자연에너르기개발이용센터」에서 ‘다목적태양열온실(토벽식태양열온실형태, 남새재배 구역· 집짐승우리· 메탄가스발효탱크· 양어구역 등) 건설(중통)
- ‘평양민속공원’ 건설성과 및 ‘평양 제1목욕탕’ 개건확장 공사 진행 소식 보도(중방)
 - * 北 내각결정에 의하여 별금강(강원도 고성군 소재 명승지), 락천동굴(咸南 고원군), 오봉동굴(平南 순천시), 이깔나무들(삼지연지구, 400년 이상) 등 ‘천연기념물’ 등록(중통)
- 노두철 내각 부총리, 미국 기업가 대표단과 담화(중통)

■ 12.16(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근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부문법들 새로 채택 발표(중통)
- 김정일 위원장, 라선대흥무역회사 현지지도(중통)
-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50돌 즈음 ‘절세의 위인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題下 김父子の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영도력, 동포애적 사랑” 찬양 및 “100일전투 승리적 결속 및 反北·反총련 對日 투쟁과 조국통일운동 전개” 강조(노동신문 社說)
- 駐北 중국 유효명 대사,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초청하에 2010년 새해 즈음 인민무력부 일꾼들 위해 연회 개최(중방)
- 강계시와 김일성종합대학,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12.17 중방)

■ 12.17(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1만프레스의 주체식 CNC화 실현, 생산능력 10배 성장(중통)

■ 12.21(월)

- 김정일 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지원에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김성운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北-브라질, 「무역협정 수정의정서」 평양서 조인(중통)
- 김정일 노작(*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79.12.19) 30돌 즈음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영이 있다' 題下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자력갱생"이라고 강조(노동신문)
-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도 만경대구역 칠골농장에서 한경송(농근맹 부위원장/보고) 등 참석하에 진행(12.22 중방)

■ 12.22(화)

- '신심과 낙관에 넘쳐 1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題下 "모든 부문 근로자들은 '100일 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당 창건 65돌이 되는 내년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중통)
- 2009년은 "정말 변이 난 해였다"며 '광명성 2호' 발사와 '축포야회', 150일·100일 전투로 "자립경제 토대강화", "군사강국 지위공고" 自評 및 김정일의 200여 차례 현지지도 등 영도를 "한울님"으로 칭송하는 오익제(조평통 부위원장) 글 보도(중통)
- '격동적인 사변들로 이어진 조선의 한 해' 題下 "△광명성2호 발사 성공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물보라' △삼일포특산물공장 완공 △철갑상어 양어 성공 △제2서해갑문 준공 △미루벌물길공사 완공 △2010년 월드컵 참가자격 획득 △150일 전투 112% 수행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된 한해였다"고 강조(중통)
- 駐北 경제 및 무역참사단, 題下 "모든 부문 근로자들은 '100일 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당창건 65돌이 되는 내년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중통)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여맹원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8돌 즈음 경축 모임들 중앙노동자회관과 여성회관에서 각각 진행(중방, 평방, 중통)
- 금진강 구창청년발전소, 태종수 함경남도 당책 참가하에 준공식 진행(12.23 중방)

■ 12.24(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 대표단, 평양 도착 환영행사(중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12.25 중방)

■ 12.25(금)

- ‘2009 조선을 돌이켜보다’ 題下 올해 北은 “2012년은 강성대국을 열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가 있었던 격동의 해”였다고 평가(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국적으로 150일 전투계획 111% 수행, 공업생산 1.2배 장성 및 수백 개의 대상 조업 개진 성과 보도(평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 환영 보고대회 진행(중방)
 - * 대표단, 금수산 기념궁전 방문 및 대성산 혁명열사능 참관(중방)
- 관교임산사업소, 平北 정주시·구성시 및 평양철도대학 등에 金父子와 김정숙 형상 ‘모자이크벽화’ 각각 건립(중통)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 환영 연회, 인민문화궁전과 목란관에서 진행 (12.26 중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꺾기모임 개최(12.26 중방)
- 평양예방약공장 약진직장 준공식, 노두철 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12.26 중방)

■ 12.26(토)

- 대동강축전지공장의 올해 계획 115.9% 완료 및 12월21일 현재 100일 전투 생산목표 120.8% 초과수행(중방)
- ‘전력공업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題下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문제 해결에 전력의 중요성” 상기 및 金父子 “전력문제 해결 위한 영도력” 칭송(중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평양대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12.27 중방)

■ 12.27(일)

- 咸北道內 여러 단위들(청진광산금속대학, 라선대흥무역회사 종업원 등)에서도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 인 쇄: 2010년 1월 28일
- 발 행: 2010년 1월 29일

-
- 발행처: 통일연구원
 -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74
(팩시밀리) 02)901-2572
 -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인쇄처 현프린트 (02)2273-7142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